



한글

한 권으로 끝내기

고등 **국어** 통합편

정답과 해설

I 시가 문학

내신 척척 01 진달래꽃

16~17쪽

1 ⑤ 2 ④ 3 ⑤ 4 아름 5 ⑤ 6 ② 7 진달래꽃

진달래꽃_김소월

해제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정하여 이별의 정한과 슬픔을 드러낸 작품으로 화자, 주제 등에서 전통적 시가 문학의 요소를 계승하고 있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체념하던 화자가 떠나는 임을 축복하고 희생과 인고의 의지로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여성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과 승화

특징 •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함.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정서를 드러냄.

한눈에 보기



1 이 시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이별의 상황과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2 3연에서 화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이 뿌린 꽃을 사뿐히 조려밧고 가라고 말하며,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처지에 실망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정한을 희생적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산화공덕(散花功德)’은 불교의 전통 의식으로 부처님(석가모니)을 포함한 모든 부처이 지나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시의 2연에서도 임이 가는 길에 꽃을 뿌리며 축복하겠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 애갈복갈(哀乞伏乞): ‘소원 따위를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빌.’을 의미한다.

②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짐.’을 의미한다.

③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한 가운데서도 도를 즐겨 지킴.’을 의미한다.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4 ‘아름’은 사람이 두 팔을 벌려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부피를 의미한다. ‘진달래꽃’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를 아름 따다 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화자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최대한 바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5 이 시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하며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며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알아두기 아리랑_작자 미상

• 해제: 이 시가는 ‘경기 아리랑’ 혹은 ‘본조 아리랑’으로도 불리는 민요로, 당대 서민들이 겪은 이별의 슬픔, 삶의 애환, 인생의 덧없음 등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 주제: 서민들의 삶의 애환

6 ①은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화자의 심정을 극대화하고 있을 뿐, 영탄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로 어순을 바꾸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①은 표면적으로 ‘슬퍼도 꼭 참고 임을 보내 드리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제발 날 버리고 떠나지 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④ ①과 같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느낀 이별의 한과 슬픔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이 임과 헤어지는 상황에 대한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7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헌신적 사랑, 한(恨)을 표상한다. 이 시에서는 붉고 선명한 이미지의 진달래꽃을 통해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여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18~19쪽

내신 척척 02 광야

1 ② 2 ④ 3 닭 우는 소리 4 ③ 5 ④ 6 ③

광야_이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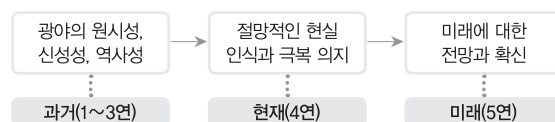
해제 이 시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작품이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시어, 남성적 어조를 통해 작가의 투철한 역사의식과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염원

특징 • 남성적이고 강건한 어조를 통해 굳은 신념을 드러냄.

•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한눈에 보기



1 이 시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투철한 역사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토속적인 시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3연을 제외한 나머지 연의 종결 어미는 ‘-라/-랴로, 유사한 종결 어미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3연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꽃이 피고 지는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각 연은 1행보다 2행이 길고, 2행보다 3행이 긴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2연에서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을 바다를 연모해 휘달린다는 역동적 이미지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 이 시는 광야의 과거(1~3연), 현재(4연), 미래(5연)를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추보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는 ‘까마득한 날’, ‘지금’, ‘천고의 뒤’라는 시어로 표현되고 있다.

3 ‘닭 우는 소리’는 생명체가 내는 소리 중 하나지만, 이 시에서는 이를 통해 광야에 ‘생명의 기척’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4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는 과거에 광야가 신성불가침의 공간이었다는 객관적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일제에 대한 저항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4연의 ‘지금 눈 나리고’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 민족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② ‘-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초인’은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나 조국의 광복 등을 의미하므로 ‘초인’을 목 놓아 부르는 것에는 독립운동가적 면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매화’는 시조나 가사, 한시 등의 작품에서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도 ‘매화’가 고난에 굴하지 않는 민족정신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시인이 한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5 <보기>에서는 자신의 목을 드리우고 피를 흘리겠다는 화자의 자기희생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 시의 4연에서도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 조국 광복에 이바지하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알아두기 십자가_윤동주

- 해제: 이 시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걸려 있는 교회당 주위를 서성이는 ‘사나이’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지식인의 자기 반성과 자기희생의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 주제: 자기희생의 실천적 의지

6 ㉠ ‘큰 강물’은 광야에서 오랜 세월의 흐름 끝에 비로소 열린 것으로 역사나 문명을 의미한다.

내신 척척 03

향수

20~21쪽

1 ④ 2 ① 3 ③ 4 ⑤ 5 ② 6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

향수_정지용

해제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와 감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각 연에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경들은 유기적인 연관성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각 연의 마지막에 고향을 잊지 못한다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앞에서 회상한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 특징**
- 향토적 소재와 감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함.
 - 후렴구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한눈에 보기

1연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의 정경에 대한 회상	← 그리움 화자
2연	거울밤의 정경과 아버지께 대한 회상	
3연	꿈과 호기심이 많았던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	
4연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5연	정겹고 단란한 고향 집에 대한 회상	

1 이 시에서는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과 같은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2 이 시의 화자는 과거 고향의 다양한 모습들을 떠올리며 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화자 역시 뒷마루를 통해 과거 외할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추억하며 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보기>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 꾸지람을 들은 화자를 위로해 주는 할머니가 드러나 있지만 이 시는 그런 존재를 찾을 수 없다.

③ 이 시와 <보기> 모두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이 시와 <보기> 모두 과거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워하고 있다.

⑤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시가 아니라 <보기>이고, <보기>에서도 경어체로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알아두기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_서정주

- 해제: 이 시는 뒷마루를 매개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한 화자가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 주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외할머니 사랑에 대한 그리움

3 3연에서는 꿈과 이상을 동경하여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돌아다니던 화자의 어린 시절 모습이 드러나 있다.

4 이 시에서 후렴구는 유기적인 연관성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된 각 연의 내용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로 집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상 전개 of 흐름을 끊는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에서는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는데, ㉡ ‘금빛 게으른 울음’에서도 역시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③ 시각적 심상

④ 촉각적 심상

⑤ 청각적 심상

6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은 고향 마을의 실개천이 오랜 세월 소리를 내면서 흘렀다는 것으로, 고향 마을이 유서 깊은 장소임을 의미하는 시구이다. 그리고 이 시구에서는 사람이, 아닌 ‘실개천’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지출대는(지절거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의인법에 해당한다.

내신 척척 04

울타리 밖

1 ④ 2 ④ 3 ⑤ 4 천연히 5 ③ 6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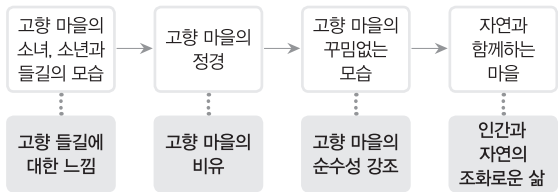
울타리 밖_박용래

해제 이 시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주로 시각적 심상의 시어를 사용하여 들길과 마을의 모습을 한 편의 풍경화와 같이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비유적 표현과 향토적 정서가 느껴지는 시어를 통해 고향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정경을 그리고 있으며,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배열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 공간에 대한 소망

특징 •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의미를 강조함.

한눈에 보기



1 이 시에 고향을 대표하는 소재들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인법과 점층법을 사용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마늘쫑', '들길' 등과 같은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을 조성하고 있다.

② 1연과 4연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울타리 밖에도 화초',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별이 뜨는'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⑤ 동일한 연결 어미 '-듯'을 반복하여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의 다양한 소재들이 지닌 '천연'한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2 화자는 시적 대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조적으로 대상을 묘사함으로써 고요하고 평화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을 그려 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애상적 정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② 이 시의 화자는 작품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는 고향 마을을 따뜻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가족애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귀향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3 <보기>의 '절로'는 '인공의 힘을 더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라는 뜻이고, 이 시의 '천연히'는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라는 뜻이다. 둘 모두 부사어로 꾸밈없는 자연의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에 해당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절로'를 반복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와 <보기> 모두 의성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② <보기>에 대구의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회고적인 정서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③ 이 시와 <보기> 모두 자연과 합일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지만,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④ 이 시와 <보기>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알아두기 청산도 절로절로~_송시열

• 해제: 이 시기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형상화된 시조로,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 주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4 하나의 시어인 '천연히'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꾸밈이나 거칠기 없는 자연스러운 고향 마을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5 '울타리 밖'에 심은 '화초'는 자연 그대로의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심은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초'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다.

6 ㉠은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와 관련이 없다. 2연에 제시된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은 생명력이 넘치는 밝은 이미지의 시어들로, 고향 마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내신 척척 05

너를 기다리는 동안

1 ③ 2 ⑤ 3 ① 4 ① 5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_황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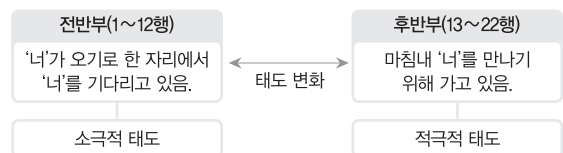
해제 이 시는 사랑하는 이(너)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동안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화자의 소극적인 모습이, 후반부에서는 화자가 '너'를 만나기 위해 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 시는 이렇게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화자의 심리와 태도를 시구의 반복과 변용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너'를 기다리는 절실함, '너'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너'와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기다림의 절실함과 만남의 의지

특징 • 시구의 반복과 변용을 통해 기다림과 만남의 의지를 강조함.

• 소극적이던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변화함.

한눈에 보기



- 1 이 시는 시구의 반복과 변용을 통해 기다림의 절실함과 만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만남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이 시는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과 같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낼 뿐 촉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이 시는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시는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지만 이를 위해 자연물에 감정 이입을 하지는 않았다.
- 2 착어에서 시인은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는 '나'가 기다리지 않고 '너'에게 가는 것이므로 삶을 녹슬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3 ㉠은 청각적 심상을 통해 '너'를 기다릴 때의 설렘과 초조함을 나타낸 것이다. ㉠은 '너'가 오기로 한 자리에 미리 나간 '나'가 느낀 감정이므로,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 있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4 ㉡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법을 사용하여 '너'와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역시 역설법을 사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5 이 시의 화자는 전반부에서 '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후반부에서는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하며 '너'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신 척척 06 원어

26~27쪽

1 ① 2 ⑤ 3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4 ③ 5 ② 6 ③

원어(原語)_하중오

해제 이 시는 열차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남아인 두 여인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동남아인 두 여인과 그들이 안고 있는 아기들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어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들에 대해 연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두 여인이 머리를 기대고 졸면서 모국어로 잠꼬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 두 여인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들을 이방인으로 인식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된다.

주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의 애환

특징 • 일상의 경험을 평범한 시어로 서술하여 친근감을 높임.
 • 대상에 대한 화자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음.

한눈에 보기

호기심

열차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남아인 두 여인을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연민함.

자각과 반성

두 여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들을 이방인으로 인식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

- 1 이 시는 화자가 고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마주한 동남아인 두 여인을 관찰하면서 결혼 이주민에 대한 자신의 차별적인 태도를 자각하고 반성하게 되는 과정,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 시에는 열차 안 이외의 공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공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화자가 동남아인 두 여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바라보며 연민의 감정을 가졌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아, 시인은 이주민들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를 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의 제목은 ⑤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외국어를 남용하는 태도에 관한 기사 제목이다.

② 대도시로의 인구 편중화 현상에 관한 기사 제목이다.

③ 사회 양극화 문제에 관한 기사 제목이다.

④ 저출산 문제에 관한 기사 제목이다.

- 3 이 시의 화자는 동남아인 두 여인을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 관찰하다가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라고 자각하며 두 여인을 호기심으로 바라봤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

- 4 [A]는 현실 생활에서 두 여인이 칭얼거리는 아기들을 달래며 하는 말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A]는 사투리로, 이를 사용하는 두 여인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② [A]는 한국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두 여인이 현실 생활을 하기 위해 써야 하는 말이다.

④ [A]는 두 여인이 칭얼거리는 아기들을 달래기 위해 하는 말이다.

⑤ [A]는 두 여인이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5 이 시에서는 자연물인 '산그늘'을 통해 타국에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 두 여인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나연). 이렇게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지민).

오답풀이 영준: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인수: 감정 이입은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그대로 불어넣어 마치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산그늘'에는 화자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감정 이입으로 볼 수 없다.

- 6 ㉡ '외국 말'은 두 여인이 한국에 오기 전에 고국에서 사용했던 말이고, ㉢ '한국말'은 두 여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보기>의 ㉠ '친정집'은 옛된 엄마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살았던 곳이고, ㉣ '시댁'은 옛된 엄마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곳이다.

알아두기 시내버스 정류장에서_하중오

- 해제: 이 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관찰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한 작품이다.
- 주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의 애환

- 1 ① 2 ①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4 ③
5 ② 6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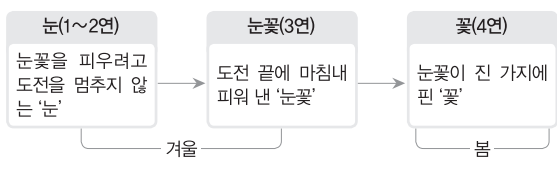
첫사랑_고재중

해제 이 시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봄이 되어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위해서는 인고와 헌신이 필요함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눈이 겨울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며, 이러한 도전 끝에 피어난 눈꽃을 ‘황홀’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봄에 눈꽃이 진 나뭇가지에 핀 꽃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며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주제 도전과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결실

- 특징** •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한눈에 보기



- 1 이 시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하는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 시에서는 첫사랑의 아픈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별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시는 대화 형식이 아니라, 독백하는 형식으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는 노력과 시련 끝에 피워 낸 눈꽃에 대한 예찬은 드러나 있으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이 시에서는 자연 현상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대응되고 있다.

- 2 이 시는 의인법, 설의법, 직유법, 은유법, 역설법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①은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후회의 정서를 강조한 것인데, 도치법은 이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설의법을 사용하여 ‘세상’이 매우 아름답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은유법, 직유법을 사용하여 ‘그대’에 대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폭포’의 힘차고 역동적인 속성을 드러내며, ‘높이도 폭도 없이 / 떨어진다.’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역설법)으로 ‘폭포’가 지닌 절대적 자유로움과 저항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정법, 의인법, 과장법을 사용하여 ‘그날’ 즉 광복의 기쁨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3 ‘상처’는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이라는 말로 꾸미게 되면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에 모순이 일어난다. 따라서 ‘아름다운 상처’는 모순 형용에 해당한다. 이 시의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다.

- 4 1~2연에서 눈은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눈꽃을 피워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비극적인 분위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상적 어조로 이 시를 낭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5 [A]에서는 ‘- 겹치’라는 어미로 문장을 종결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의문과 추측의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는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6 ⑥ ‘그 한 번 덴 자리’는 곧 봄이 되어 눈꽃이 진 자리로, 역경을 딛고 어렵게 이룬 첫사랑이 아픈 경험으로 남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1 ② 2 ② 3 ④ 4 아아 5 ⑤ 6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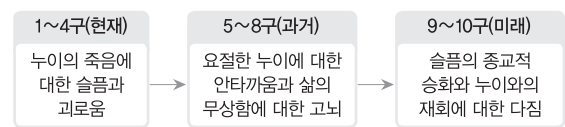
제망매가(祭亡妹歌)_월명사

해제 이 시가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부른 10구체 향가이다. 누이에 대한 애상적 정서와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슬픔의 종교적 승화

- 특징** •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남.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한눈에 보기



- 1 이 시가는 승려인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노래이므로, 평민 신분의 작자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5~8구에서는 이른 나이에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이 자연물들이 누이가 애착을 가졌던 대상이나 누이를 연상시키는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서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에는 혈육이라도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무상함을 느끼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⑤ 9~10구에서 화자는 도를 닦아 ‘미타찰’에서 누이와 만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누이와의 재회를 기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이 시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이라는 시련에 직면하지만, 종교적인 자세로 슬픔을 극복하며 미타찰에서 누이와 재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이며, 내용을 전환하고 시상을 고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낙구의 첫머리에 위치하는 감탄사이다. 이 시가에서는 '아아'가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5 이 시가와 <보기> 모두 자연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가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자연에 빗대어 형상화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하여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이 시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고려 왕조의 도읍지를 둘러보며 고려 왕조가 몰락한 데에서 오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② 이 시가는 3단 구성을 취하며, 낙구 첫머리에는 반드시 감탄사가 들어간다. 이는 '초장-중장-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지고, 종장의 첫 음보에 감탄사가 들어간 <보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시가는 뚜렷한 율격을 알 수 없는 반면, <보기>는 '오백 년(五百年) / 도읍지(都邑地)를 / 필마(匹馬)로 / 도라드니,'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나고 있다.

④ 이 시가는 누이와의 재회라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알아두기 오백 년 도읍지를 ~ 길재

- 해제: 이 시가는 고려 왕조의 도읍지를 둘러보며 인생의 무상함과 자연의 불변성을 대조적으로 인식한 화자가 망국의 한을 노래한 시조이다.
-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

6 ㉠의 '떨어질 앞'은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누이의 죽음 이후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2~33쪽

내신 척척 09 가시리

1 ④ 2 ④ 3 설은 님 4 ④ 5 ②

가시리_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잡지 못하고 있지만, 곧 다시 돌아오라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임에 대한 마음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淸恨)

- 특징**
- 총 4연으로 된 분연체 형식임.
 - 반복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정한을 강조함.

한눈에 보기

화자

떠나는 임

슬픔 → 원망 → 체념 → 기원

1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와 같이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노래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들어간 것은 이 시가가 민요로 불리다가 후에 궁중의 속악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가가 처음부터 궁중 연회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이 시가는 '가시리/가시리/있고'와 같이 3·3·2조의 음수율이 나타나고 있다.

② 이 시가는 간결하고 솔직한 어조로 떠나는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이 시가는 이별의 정한(淸恨)이라는 전통적 정서를 주제로 삼고 있다.

⑤ '나',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와 같이 여음과 후렴구가 반복되어 음악적 효과와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2 이 시가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가와 <보기> 모두 떠나는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시가는 '가시리/가시리/있고'와 같이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고, <보기> 역시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이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

② 이 시가에서는 자연물이 의미 있는 시어로 등장하지 않지만, <보기>에서는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떠나는 임을 축복하는 헌신적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③ 이 시가와 <보기>는 모두 떠나는 임을 잡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는 여성적 어조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⑤ 이 시가의 화자는 임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며 자신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3 이 시가에서 '설은 님'은 '설은'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로 해석할 경우 시적 상황은 임도 화자와 마찬가지로 이별을 슬퍼하나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이한 상황이 되며, 후자로 해석할 경우 시적 상황은 임이 화자를 떠나 버린 상황이 된다.

4 [A]는 '반복-반복-변화-반복'의 aaba 구조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A]와 같이 aaba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④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대구법이 사용되었을 뿐, aaba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5 ㉠에서 화자는 임이 없이 혼자 어찌 살겠냐고 말하고는 있지만,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화자는 다만 자신을 두고 가는 임을 말리지 못하고 수동적인 태도로 원망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은 임에게 자신을 떠나가려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반복을 통해 화자는 임에게 제발 가지 말라는 애원의 뜻을 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과 ㉢은 '생각 같아서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혹시나 임께서 서운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은 진심과 함께 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⑤ ㉣은 '떠나더라도 바로 돌아오시라.'는 간절한 염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저 임이 돌아오기만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④ 2 ⑤ 3 ③ 4 ① 5 매화 6 ③

가 이 몸이 주겨 가서~ 성삼문

해제 이 시가는 작자가 단종의 복위 운동의 실패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을 버릴 수 없음을 나타낸 평시조이다. 이 시조에서는 '소나무'와 '눈'이라는 관습적인 상징물을 대비하여 어지러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홀로 지조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죽어서도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

특징 • 관습적 상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조의 의미를 강조함.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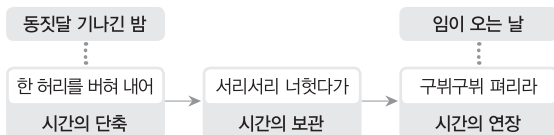
나 동지스돌 기나긴 밤을~ 황진이

해제 이 시가는 기나긴 겨울밤에 입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평시조이다. 이 시조의 화자는 홀로 지내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잘라 내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입이 오는 날에 그 시간을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상화하여 참신한 인상을 주고 있다.

주제 입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

특징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상화함.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림.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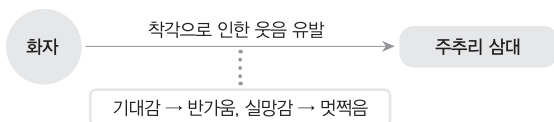
다 님이 오마 흥겨울~ 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입과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사설시조이다. 이 시조의 화자는 입이 온 줄 알고 입을 마중하기 위해 허둥지둥하면서 달려가다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알고 멧쩍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한 과장된 행동 묘사, 사물의 의인화 등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주제 입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특징 • 과장된 행동으로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함.
• 착각으로 인한 화자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묘사함.

한눈에 보기



1 ㉠과 ㉡는 평시조, ㉢는 사설시조로 모두 갈래가 '시조'이다. 평시조는 3장, 6구, 4음보라는 시조의 기본형을 지킨 것이고,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장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사설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되고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고 있다.

2 ㉣의 화자는 초장에서 입이 온다는 소식에 기대를 한다. 그러다가 중장에서 '주추리 삼대'를 입이라고 착각하여 반가움에 달려갔지만 그것이 입이 아닌 것을 알고 실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남을 웃길 뻔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멧쩍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의 '백설'은 '낙락장송'을 춤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② ㉡는 '백설'과 '낙락장송'이라는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의 '구뽀구뽀 펄리라'는 입이 부재하는 시간을 잘라 내어 입이 오신 날 밤에 쓰겠다는 것이므로 입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입으로 착각한 것에서 비롯된다.

3 ㉣의 화자는 입이 없는 시간을 잘라 내어 입이 오시는 날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의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입으로 착각하고 급하게 달려 나가고 있는데, 이 모두 떠나간 입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 화자는 착각으로 인한 자신의 행동을 해학적, 과장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담담한 어조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고는 볼 수 없다.

5 ㉠의 '낙락장송'은 백설이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에도 독야청청하는 것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보기>의 '매화' 역시 구름이 험한 겨울에 홀로 핀 것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알아두기 백설이 주자진 곁에_이색

- 해제: 이 시가는 상징적인 시어의 대비를 통해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 상황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시조이다.
- 주제: 고려의 국운 쇠퇴에 대한 한탄과 우국충정

6 ㉠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인 '밤'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관념의 시각화)하고 있다. <보기>의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심'을 문지를 수 있는 대상으로, ㉠에서는 시간의 개념인 '하루'를 마당에 가득한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 글쓰기를 모심기에 빗댄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 생명체가 아닌 마당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활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 '잠자리를' '병균'에 직접 빗댄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알아두기 산촌여정_이상

- 해제: 이 글은 도시 생활에 익숙한 글쓴이가 산촌에 머물면서 느낀 점들을 편지 형식으로 쓴 수필이다.
- 주제: 도시적 감수성으로 바라본 시골의 정취

내신 척척 11

관동별곡

1 ④ 2 ④ 3 ① 4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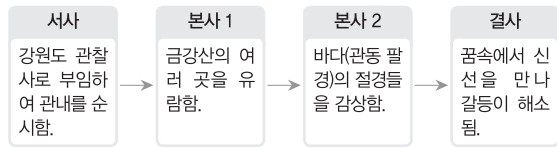
관동별곡(關東別曲)_정철

해제 이 시가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화자가 금강산과 동해 관동 팔경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쓴 기행 가사이다. 화자는 유교적 충의(忠義) 사상에 바탕을 둔 연군의 정과 위정자로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을 편안히 하겠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금강산과 관동 지방의 절경에서 느낀 감상과 심회

특징 • 생략과 비약, 비유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여정과 견문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 형식상으로는 4음보의 율격을 보이는 운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서사적 성격을 띠고 있음.

한눈에 보기



- 1 이 작품은 양반이자 관료인 작가의 감상과 사상이 드러난 양반 가사로, 금강산과 관동 지방의 절경에서 느낀 감상과 심회를 읊고 있다. 백성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서사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가사들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답풀이 ① 임금을 그리워하는 부분과 나랏일을 근심하며 선정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유교 사상이, 신선의 세계를 추구하는 화자의 신선적 풍모가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도교 사상이 나타난다.

② 기행문은 여정, 견문, 감상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가사 중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가사를 '기행 가사'라고 한다.

③ 이 작품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작가가 금강산과 관동 지방을 유람하면서 느낀 감상을 노래한 것이다.

⑤ 가사는 형식적으로는 3·4조의 4음보 연속체로 운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서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 2 '안분지족(安分知足)'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앎.'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삼각산 데일봉이 험하면 뵈리로다.'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연군지정(戀君之情)'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연하고질(煙霞痼疾): 산수의 좋은 경치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강해 마치 고치지 못할 병이 든 것 같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

② 연군지정(戀君之情):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

③ 우국지정(憂國之情):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

⑤ 인생무상(人生無常): 인생(人生)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

- 3 '서사-①'에서는 부임지로의 여정 및 화자의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화려한 경치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3·4(4·4)조, 4음보로 규칙적인 운율이 나타나고 있다.

③ '강호'는 자연의 일부본인 강과 호수로 자연 전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대유법이 사용된 것이다.

④ '어와'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임금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관찰사로 임명을 받고 나오는 상황을 생략과 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전개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

- 4 화자는 강원도 회양을 지나며 중국의 회양을 떠올린다. 중국의 회양은 태수인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던 고을이다. 화자는 마침 두 고을의 이름이 같으므로 자신도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내신 척척 11

관동별곡

1 ③ 2 ④ 3 ④ 4 ③ 5 하늘

- 1 화자는 금강산 유람을 떠나면서 '행장을 다 썰티고'라고 하고 있다. 이는 여행할 때 쓰는 물건들을 간소하게 했다는 의미이므로, 행장을 든든하게 챙겼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자신이 다스리는 관내에 아무 일이 없어 마음 놓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며 은근히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고 있다.

② 화자가 금강산 유람을 '삼월'에 시작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서호 뱃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화자가 아름다운 금강산을 창조한 '조화왕(조물주)'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2 '망고딧'과 '혈망봉'은 화자가 진현대에서 조망하고 있는 금강산의 봉우리로, 화자는 강직한 신하의 모습을 무정물인 두 봉우리에 비유해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스스로의 다짐을 밝히고 있다.

- 3 화자는 오랜 세월 동안 굶힐 줄 모르는 '망고딧'과 '혈망봉'의 모습에서 강직한 신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③은 '여산과 같은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 다 보인다.'라는 뜻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중국의 여산에 견주어 드러내고 있다.

② ⑥은 금강산의 봉우리를 '부용(연꽃)'과 '백옥(백옥)'에 비유하고 있다.

③ ⑦은 '동명을 박춘는 돛'에서 동적 이미지, '북극을 곁눈는 돛'에서 정적 이미지가 나타나 이 둘이 대조되고 있다.

⑤ ⑪은 자신도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4 [A]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A]에서는 직유법, 은유법, 대구법,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만폭동 폭포의 역동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5 ㉠의 '북극'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북극성으로 임금을 상징하고, '하늘' 역시 높이 있는 것으로 임금을 상징한다.

내신 척척 11

관동별곡

1 ① 2 ② 3 ② 4 ③ 5 ③

- 1 화자는 '기심딧'에 올라 '동향성'과 '비로봉'을 바라보고 있을 뿐 그곳에 직접 오르지는 않았다. '기심딧'에서 내려온 화자는 '화룡소'로 이동하고 있다.

2 점층법이란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여 마침내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표현 방법으로, ④에서는 이와 같은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3 ‘풍운(風雲)’은 바람과 구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용이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영웅호걸들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좋은 기운을 뜻한다. 따라서 ‘풍운’은 시련이나 고통의 의미가 아니라 화자가 선정을 베풀 좋은 기회를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천년 노룡’은 화룡소에 굽이치고 있는 ‘물’을 비유하는 동시에 오랜 경륜과 포부를 지닌 ‘화자 자신’을 비유한 중의적인 표현이다.

③ ‘삼일우’는 농사에 흠족한 비라는 뜻으로, 선정이나 임금의 은총을 비유한 표현이다. 삼일우가 내려 ‘이온 풀(시든 풀)’을 살려 낼 수 있으므로, 생명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음애(그늘진 낭떠러지)’는 척박한 환경을 의미한다. 음애에 있는 ‘이온 풀’은 험벗고 굶주린 백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⑤ 화자는 용이 비를 내린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기회를 얻으면 굶주린 백성에게 임금의 은총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 있다.

4 ㉠은 공자가 동산과 태산에 올라 노나라와 천하를 작게 여긴 기개를 가리킨다.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를 뜻하므로 ㉠의 의미와 관련된다.

오답풀이 ①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②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함.

④ 빈이무원(貧而無怨): 가난해도 세상에 대한 원망이 없음.

⑤ 불철주야(不徹晝夜):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음.

5 화자는 ㉡에서 ‘비로봉에’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이상하랴?라고 하며, 비로봉 정상에 오르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다.

내신 척척 11

관동별곡 4

42~43쪽

1 ③ 2 ⑤ 3 ① 4 ②

1 <보기>에서는 화자의 슬픈 심정을 냇가에 의탁해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금강산을 떠나는 화자의 아쉬운 심정을 ‘냉농 벽계(시냇물)’와 ‘수성 데도(산새)’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알아두기 천만 리 머나먼 길에~_왕방연

- 해제: 이 시가는 어린 임금(단종)을 유배지인 영월에 두고 돌아오는 길에서 느낀 화자의 안타까움을 냇물에 의탁하여 표현한 시조이다.
- 주제: 단종과의 안타까운 이별

2 ‘본사 1-7’에서 화자는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불정대에 올라 십이 폭포의 장관을 감상하고 있다. 화자는 십이 폭포의 근경이 실의 가득처럼 보인다고 하고 있고, 원경은 벼들

에 베가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불정대까지의 여정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십이 폭포의 물줄기를 ‘은하수’라고 은유법을 사용해 나타내고 있다.

③ 화자는 불정대에 올라 십이 폭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④ ‘녀산이~말 못하려니.’에서 중국의 여산 폭포보다 십이 폭포가 더 아름답다며 십이 폭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3 화자는 ‘본사 2-1’ 이전에는 금강산을 유람하였지만, ‘본사 2-1’부터는 금강산을 떠나 동해로 가고 있다.

4 ‘취선’은 자연의 풍경과 흥취에 도취된 화자 자신을 나타내며, ‘백구(흰 갈매기)’는 화자가 벗으로 여기는 존재로 자연과의 합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따라서 [A]에는 자연의 흥취에 빠진 화자가 인간과 자연의 일체를 뜻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렀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 우화등선(羽化登仙): 사람의 몸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됨.

③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⑤ 설상가상(雪上加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

44~45쪽

내신 척척 11

관동별곡 5

1 ③ 2 ④ 3 ① 4 ①

1 ‘청간댕 만경디 몇 고디 안돏던고.’의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사선이다. 화자가 사선이 간 곳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화자의 여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2 ‘본사 2-4’에는 늦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만, <보기>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둘 다 해가 떠오르는 장관을 묘사하고 있다.

② ‘본사 2-4’에서는 임금을 해에 빗대고 있고, <보기>에서는 해를 ‘회 오리밤(동그랗게 생긴 밤)’에 빗대고 있다.

③ 둘 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여 바다 위로 떠오를 때까지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⑤ 둘 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시각적,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알아두기 동명일기_의유당

- 해제: 이 글은 남편을 따라 명승고적을 유람하던 의유당(意幽堂)이 동해 월출과 일출의 광경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여성 특유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기행 수필이다.
- 주제: 동해의 월출과 일출의 장관

3 ㉠은 해가 높이 솟아올랐을 때 머리카락을 헤아릴 만큼 온 세상이 밝다는 의미인데, ‘해’는 임금을 상징하므로 결국 임금의 예지가 그만큼 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4 ㉠은 지나가는 구름으로 여기서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을 비유하고 있다. ㉠의 '구름'도 '간신'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② 대상이 지향하는 세계를 가리킨다.
 ③ 화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이다.
 ④, ⑤ 둘 다 자연물을 가리킨다.

내신 척척 11

관동별곡 6

46~47쪽

1 ⑤ 2 ④ 3 ④ 4 ③ 5 파도

- 1 <보기>는 작품 자체의 의미에 주목하는 절대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 자체의 구성과 표현 방법에 대해 감상하고 있는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은 반영론적 관점, ②와 ④는 효용론적 관점, ③은 표현론적 관점으로 모두 외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 2 화자는 관찰사로서의 임무와 자연 속에서 노닐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화자는 나랏일로 다니는 관찰사로서의 '왕명'은 끝나 가는데, 자연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어 그윽한 회포와 나그네의 시름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 3 ㉠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포의 분위기에 비해 홍장의 고사가 지나치게 야단스럽다는 뜻이다.
- 4 '천석고황(泉石膏肓)'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되었다는 뜻으로, 태평한 시절을 이르는 ㉠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강구연월(康衢煙月): '강구'는 사통오달의 큰길로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거리, '연월'은 연기가 나고 달빛이 비친다는 뜻으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말한다.
 ② 고복격양(鼓腹擊壤): 배를 두드리고 흙덩이를 친다는 뜻으로, 배불리 먹고 흙덩이를 치는 놀이를 한다. 즉 매우 살기 좋은 시절을 말한다.
 ④ 태평연월(太平煙月): 세상이 평화롭고 안락한 때를 말한다.
 ⑤ 태평성대(太平聖代):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을 말한다.
- 5 '노호 고래'는 거칠고 성난 파도의 모습을, '은산'은 높이 솟아 부서지는 흰 파도의 모습을, '빅설'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물보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내신 척척 11

관동별곡 7

48~49쪽

1 ⑤ 2 ③ 3 ③ 4 ① 5 ③

- 1 화자는 관찰사로서 자신의 임무를 지키고 선정을 베풀고자 다짐하는 등 본인의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화자가 처한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가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도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2 화자는 관찰사로서의 임무와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꿈을 꾸고 난 후 평온한 마음으로 충의와 연군의 세계를 지향하게 된다. 이처럼 꿈은 개인적 자아(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와 사회적 자아(관리로서의 의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 3 '결사-2'에서 화자는 꿈속에서 신선과 대화를 하면서 선우후락의 깨달음을 얻고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결사-2'에서는 '현실 → 꿈 → 현실'의 구조가 나타난다. 여기서 꿈은 신선과의 만남을 통해 초월적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화자가 관리로서 본연의 자세를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② '그딴들 내 모랴 ~ 이 술 흔 잔 머거 보오'는 신선이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으로, 화자와 신선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④ 화자는 모든 백성들과 술을 나누어 마시고 싶으며 애민 정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선정을 베풀겠다는 다짐을 보여 주고 있다.

⑤ 화자는 지금 당장은 백성들을 위해 살고 나중에 신선과 다시 만나 술을 마시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세상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개인의 즐거움을 찾겠다는 선우후락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은 꿈에서 깨어난 화자가 바라본 현실의 정경을 표현한 것으로,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의미이다. 즉, 이는 유교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④ 낙구가 시조의 종장처럼 3·5·4·3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어 이 글이 정격 가사임을 알 수 있다.

③, ⑤ '명월'과 '천산만낙'과 같은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비추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갈등이 명료하게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진선'은 신선이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나머지는 '신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능 통통 01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자화상 50~52쪽

내용 확인 문제 1 ○ 2 갈매나무 3 우물 4 ×

1 ③ 2 ② 3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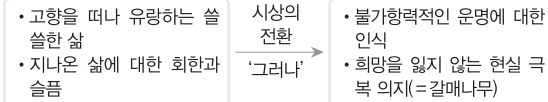
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_백석

해제 이 시는 가족과 헤어져 타향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슬픔에 빠져 방황하던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그려 낸 작품이다.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근황과 심정을 써 내려가고 있으며, 객관적 상관물인 '갈매나무'를 통해 화자가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고향마저 등진 채 살아가야 했던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여 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다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특징 • 화자의 근황과 심정을 편지 형식으로 써 내려감.
 •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나타냄.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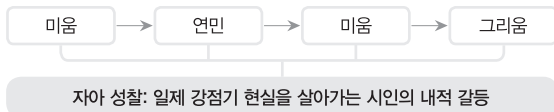
나 자화상_운동주

해제 이 시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우물을 들여다보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자아에 대한 성찰과 자기 연민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우물 속 자아에 대해 '미움 → 연민 → 미움 → 그리움'과 같은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했던 시인의 내적 갈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특징 • 평이한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진솔함.
• 구체적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형상화함.

한눈에 보기



- 1 가의 화자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우물 속에 있는 자아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 제시된 자연물은 '갈매나무'로, 이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며, 나.에 제시된 '달', '구름', '하늘', '바람' 등의 자연물은 화자가 꿈꾸는 순수한 세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 시어이다.

② 가의 화자는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나.의 화자 역시 자신을 성찰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④ 가의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을 운명이라고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나.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의 화자는 '사나이'에 대해 미움과 연민, 그리움 등의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가.의 화자는 특정 대상에 대해 모순된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 2 가의 작품 전반에서는 '샷', '달옹배기', '북덕불' 등과 같은 토속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토속적인 소재를 찾을 수 없으며, '나뭇손'과 같은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그러나' 이후에 화자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갈매나무'를 통해 시련을 견디며 의지를 다지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④ 촉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는 공감각적 심상의 표현으로 이상 세계의 긍정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⑤ 2연은 반복함으로써 시적 안정감과 균형미를 부여하고 있다.

- 3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는 현실적 자아(화자)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미움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우물'은 화자를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라고 하였는데 그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화자는 우물을 통해 이상 세계를 본다고 하였으므로 우물 속에 비추어진 '달', '구름', '하늘', '바람' 등은 이상 세계를 보여 주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인 '사나이'를 미워하지만 또 연민을 느끼고 그리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내적 갈등으로 볼 수 있다.

⑤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현실적 자아를 부끄러워하던 화자는 6연에서 과거의 순수했던 본래적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고, 두 자아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된다.

수능 통통 02 슬픔이 기쁨에게/아침 이미지 1 53~55쪽

내용 확인 문제 1 ○ 2 함박눈 3 어둠 4 ×

1 ⑤ 2 ① 3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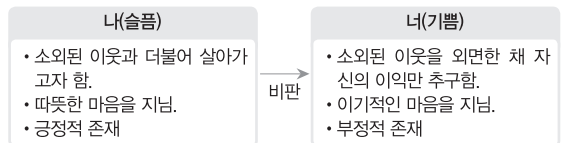
가 슬픔이 기쁨에게_정호승

해제 이 시는 '슬픔'과 '기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일반적 인 인식을 뒤바꾸어 놓음으로써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고, '슬픔'은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이자, 이기적인 '기쁨'까지도 보듬고자 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이 시는 이러한 두 존재를 통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하고, 소외된 이웃까지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역설하고 있다.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추구

특징 •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상을 전개함.
•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으로 주제를 강조함.
• '-겠다.'의 반복적 사용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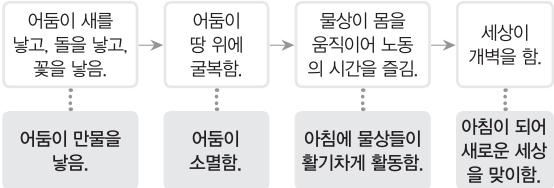
나 아침 이미지 1_박남수

해제 이 시는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 오는 모습을 이미지 중심의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기상전결의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 2행의 '기'에서는 '만물을 낳는 어둠'을, 3~5행의 '승'에서는 '어둠의 소멸'을, 6~10행의 '전'에서는 '아침에 물상들의 활기찬 모습'을, 11~12행의 '결'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세상'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의 모습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함.
• 이미지 중심의 감각적 표현을 사용함.

한눈에 보기



- 1 ㉠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슬픔’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에서도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어둠’을 만물을 잉태하는 시간으로 그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지적이고 절제된 어조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이다.

② ㉠에서만 ‘-겠다.’를 반복하여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만 ‘너’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의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움 율림.’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고, ㉠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2 ㉡의 ‘너’는 ‘기쁨’으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화자는 ‘너’의 잘못을 일깨워 주면서 ‘너’가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시인처럼 민중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사는 ‘나(슬픔)’인 화자이다.

- 3 ㉡에서 ‘개벽’은 어둠이 사라진 아침에 새롭게 태어난 세상이라는 ‘아침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개벽’을 통해 혼란스러운 대지의 모습으로 시상이 반전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능 통통 03 청산별곡/십 년을 경영하여~

56~58쪽

내용 확인 문제 1 ○ 2 청산, 바다 3 돌, 청풍

1 ㉣ 2 ㉤ 3 ㉥

㉡ 청산별곡(靑山別曲) _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현실의 갈등과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이상향을 추구하는 화자의 심정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화자는 청산이나 바다와 같이 고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를 그리워하지만, 은둔한다고 삶의 고통이 풀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현실적 삶의 고통과 비애를 술로써 달래려 한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에서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갈등을 해소하려는 운명론적 인생관이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동일한 후렴구의 반복, 적절한 비유, 고도의 상징성이 담긴 시어의 사용 등으로 고려 가요 중에서도 문학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주제 삶의 고통과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 특징** • ‘청산’에서의 삶을 노래한 전반부와 ‘바다’에서의 삶을 노래한 후반부가 대칭적 구조를 이룸.
• ‘㉠’, ‘㉡’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함.

한눈에 보기

청산		대칭적 구조	바다	
1연	이상향인 청산에 대한 동경		6연	이상향인 바다에 대한 동경
2연	삶의 비애와 시름		5연	숙명적인 삶과 비애에 대한 체념
3연	속세에 대한 미련		7연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
4연	밤에 느끼는 삶의 고독		8연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_송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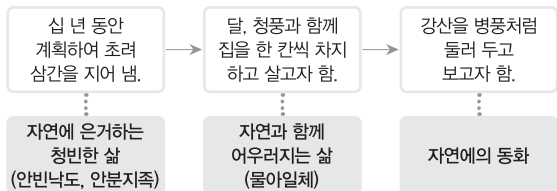
해제 이 시가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간 작가가 자연 속에서 삶을 향유하면서 그들과 하나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노래한 시조이다. 초려 삼간을 지어 ‘달’과 ‘청풍’에게 한 칸씩 내어 주고 ‘강산’은 집 밖에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는 표현을 통해 자연과 혼연일체(渾然一體)된 삶과,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물을 화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동양적 자연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安貧樂道)

특징 • ‘달’, ‘청풍’과 같은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는 재미있는 발상이 나타남.

한눈에 보기



- 1 ㉡의 화자는 3연에서 ‘뜰(속세)’ 아래 가던 ‘새’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 이는 ㉡의 화자가 과거에 살던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의 화자는 소박하게 지어 낸 작은 초가에서 자연과 어울려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이는 ㉢의 화자가 비록 가난하지만 자연과 합일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2 ㉡에서 사용된 후렴구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 ‘㉡’을 반복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줄 뿐,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또한 ㉡에서 화자는 삶의 비애와 시름을 느끼고 있으므로 후렴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연의 ‘멀위와’ ‘드래’, 6연의 ‘㉠ 무자기’와 ‘구조개’는 모두 화자가 소망하는 소박한 생활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4연에서 낮과 밤의 대비를 통해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와 같이 ‘a-a-b-a’의 구조를 가진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2연의 ‘새’는 시름이 많은 화자가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감정 대상이다.

- 3 '강산'은 ㉠의 화자가 거리감을 느껴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초가에 들일 수 없어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고자 하는 것으로, ㉡의 화자가 어울려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대상이다.

오답풀이 ① ㉠의 '청산'은 화자가 살기를 희망하는 곳으로, 화자의 현실 도피처이자 이상향을 의미한다.
 ② ㉠의 '돌'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화자가 맞은 것으로, 인간의 숙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한다.
 ③ ㉡의 '흙' 연주를 바라는 것은 '흙' 연주를 들으면서 삶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④ ㉡의 '강수'는 강한 술로, 현실적 비애를 해소하기 위해 화자가 선택한 수단이다.

- 2 <보기>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시름을 잊으려고 하지만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 뼉속까지 사무쳐 병이 났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이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내용은 <보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A]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③ [A]의 화자는 '낙월(落月)'이 되어 멀리서라도 임을 바라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의 화자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A]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 모두 죽어서 영혼으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일편단심을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사미인곡(思美人曲)_정철

- 해제: 이 시가는 정철이 지은 가사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움을, 임을 영원히 따르고자 하는 한 여인의 절실한 마음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수능 통통 04 속미인곡

59~61쪽

내용 확인 문제 1 ○ 2 × 3 계성 4 구준비

1 ① 2 ② 3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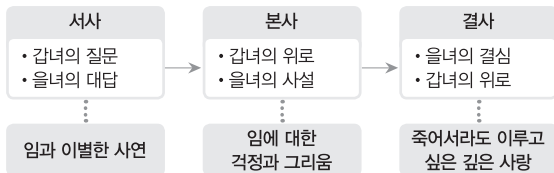
속미인곡(續美人曲)_정철

해제 이 시가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한 연군 가사로, 「사미인곡」에 비해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정적 자아의 독백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사미인곡」과 달리, 중심 화자와 보조적 화자를 설정하여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간곡하게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특징 •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살림.

한눈에 보기



- 1 이 글은 중심인물인 '을녀'와 보조 인물인 '갑녀'를 화자로 설정하여 두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 글은 일반적인 가사와 마찬가지로 4음보의 연속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중국 고사를 인용하지 않고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화자의 정서를 소박하고 진솔하게 표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④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툼이라 허물하랴'에서 중심 화자(을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과의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빈 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고 있다.

- 3 ㉠에서 '을녀'가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은 임을 보려고 노력을 기울인 것이므로 여기에는 임금을 만나고자 하는 정철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름'과 '안개'는 '을녀'가 임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이므로 '구름은 꺾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등에서 정적에 가로막혀 임금과 만나지 못하는 정철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은 임금이 계신 서울을 의미하므로 ㉠을 통해 관직에서 물러난 정철의 처지를 알 수 있다.
 ② 임이 밤에 어찌 주무시는지 걱정한다는 내용의 ㉡을 통해 임금과 떨어져 있어도 임금을 염려하는 정철의 충성심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모첨(茅簷)'은 '초가지붕의 처마'를 의미하며, '촌 자리의 밤 동안 도라오니'는 정철이 임금의 소식을 알기 위해 애를 쓰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을 통해 정철이 은거하고 있는 시·공간적 상황을 알 수 있다.
 ⑤ '썸'은 임금과의 재회를 바라는 정철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따라서 ㉢을 통해 임금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정철의 바람과 의지를 알 수 있다.

내신 척척 01

레디메이드 인생

70~71쪽

1 ⑤ 2 ⑤ 3 ⑤ 4 ②

레디메이드 인생_채만식

해제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비애와 좌절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식인 P의 삶을 통해 공급의 과잉으로 실직 상태에 있는 지식인들을 양산한 당시의 사회 현실과 궁핍한 상황에서도 무능력함을 보이고 있는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주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무능력한 지식인의 비애

특징 • 냉소적이고 비꼬는 듯한 어조를 통해 풍자 효과를 높임.
•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전체 줄거리

- 발단** 지식인 P는 구직에 실패하고 신문사에 취직하기 위해 K사장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한다.
- 전개** P는 자신이 고등 교육을 받아 인텔리가 된 것을 원망하고, 자신과 같은 지식인 실업자를 양산한 현실에 분노한다.
- 수목 부분** **위기** P는 같은 처지인 M, H와 함께 술집을 전전하다 술집 여자에게서 슬픔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온다.
- 절정** P에게 아들 창선을 서울로 올려 보낼 테니 직접 키우라는 편지가 고향의 형에게서 오고 아들 창선이 서울로 올라온다.
- 결말** P는 창선을 자신과 같은 인텔리 실업자로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창선을 인쇄소에 무료 견습공으로 맡기고 나온다.

-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위치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과 달리 다른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은 제한하고, 중심인물 P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 ‘발단-㉠’에서 K사장은 자신을 찾아오는 지식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 일을 만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청년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던진 말로, 실제로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거리들을 창출할 수 있어서 한 말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당시 조선은 농업국이며, 농민이 전 인구의 팔 할이었다.
② P와 같이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많아서 취업이 쉽지 않았다.
③ 취업을 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④ K사장과 같이 신용 자본가가 생겼고, 지식인들은 도회지에서 월급 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
- K사장은 “저렇게 좋은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저렇게들 애를 쓰니.”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식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 주는 착한 K사장의 위선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리고 K사장은 자신들의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는 지식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 사업을 하라

고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 ‘발단-㉠’에서 K사장은 구직하러 오는 지식 청년들을 격퇴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으로 돌아가라’, ‘일을 만들어라’는 설교를 함부로 하고 있으므로, ㉠에는 ‘돈이나 물건을 헐뜯게 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자룡이 흰 창 쓰듯’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상대방을 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음식을 매우 빨리 먹어 버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갑자기 덮쳐서 감쪽같이 채 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내신 척척 01

레디메이드 인생

72~73쪽

1 ② 2 ⑤ 3 ④ 4 레디메이드 인생

- ‘전개-㉠’의 “재등 총독이 문화 정치의 간판을 내걸고 골골이 학교를 증설하였다.”를 통해 정책의 변화로 일제 역시 조선의 민중에게 지식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신정변과 한일 합방을 거쳐 자유주의 사조는 기미년에 비로소 확실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하고 있다.
③ 지식 보급의 결과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생겨나 일부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학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였다.
④ 공자 알 맹자 알은 시대가 늦었다며 과거 유학을 중시하던 교육에서 벗어나 신학문을 배우게 하였다.
⑤ 신용 부르주아지는 지식 계급을 대량으로 주문하였지만, 민중의 지식 보급 이후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만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지식인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다.
- [A]에는 사람들이 교육에 열광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A]와 같이 교육 열풍이 불게 된 것은, 지식인이 되어 지적 직업을 구하는 것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대다수는 단순 기능직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지식인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 ㉢의 ‘무대’는 ‘골패나 투전에서, 열 곳이나 스무 곳으로 짝 차서 쓸 곳수가 없어진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은 ‘가보(아홉 곳)’를 잡은 부르주아나 ‘진주(다섯 곳)’를 잡은 일부 지식꾼과는 달리 노동자와 농민은 아무 이득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레디메이드 인생’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회의 요구에 따라 하나의 부속품처럼 사용되는 기성품과 같은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의미한다. 즉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잉 공급된 지식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지내는 모습을 대량 생산되어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기성품에 빗대어 ‘레디메이드 인생’이란 말로 표현한 것이다.

내신 척척 01

레디메이드 인생

74~75쪽

1 ③ 2 ② 3 ④ 4 편지 한 장

- 1 이 글에서 P는 지식인의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인물이지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숨기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다. 또한 P의 가족들은 이미 P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 2 ㉠은 노파에게 방세를 독촉받을 것을 걱정하는 P의 막막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은 창선에게 공부를 시킬 것을 요구하는 형에 대한 P의 원망스러운 심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은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지니지 못한 P의 성격을, ㉣은 창선을 공부시키지 못하는 형의 안타까운 심정을, ㉤은 형의 편지를 받고 못마땅한 P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P는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임에도 자신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실업자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P는 무능력한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느낀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자신의 아들까지 경험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는 이런 P의 생각을 냉소적인 어투로 표현한 말이다.
- 4 ‘편지 한 장’은 창선을 서울로 올려 보낸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로, 창선과 관련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됨을 알려 주는 소재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P가 창선을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내신 척척 01

레디메이드 인생

76~77쪽

1 ③ 2 ③ 3 ② 4 ㉦: 풍자, ㉧: 반어

- 1 <보기>에서는 192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인 지식인들의 취직난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이 글 역시 지식인 실업자 P의 궁핍한 생활상과 그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 2 P가 아직 어린 창선을 인쇄소에 보내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은 무기력한 지식인이 되는 것보다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P의 판단에는 일제 강점기 교육에 대한 불신과 비판 의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 ㉢, ㉤는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는 공부로,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로 하는 공부로,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 4 ‘절정 2-가’에서는 P의 무기력한 생활상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P의 무능력함을 풍자하고 있다.

내신 척척 01

레디메이드 인생

78~79쪽

1 ④ 2 ② 3 ⑤ 4 고쿠라 양복

- 1 창선을 인쇄소에 맡기고 나오는 P의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은 어린 아들을 노동자로 내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과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서는 P가 인쇄소 직원을 신경 쓰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2 이 글은 식민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지식인 실업자를 양산한 당시 식민지 교육 정책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식인이 노동자보다 못하다며 자식을 인쇄소에 취직 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은 노동의 현장과 거리를 두는 이율배반적인 P의 모습을 통해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지식인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3 ㉠은 P가 창선을 지식인 실업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인쇄소 무료 견습공으로 맡기고 나오면서 한 말이다. ㉡에는 대량 생산되어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기성품과 같은 삶, 즉 레디메이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자조가 드러나고 있다.
- 4 ‘고쿠라 양복’은 서울에 가는 창선을 걱정하며 외가에서 챙겨입혀 보낸 옷이며, 동시에 P가 헤어진 아내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떠올리도록 하는 소재이다.

내신 척척 02

달밤

80~81쪽

1 ⑤ 2 ① 3 (시골이라는 느낌을 풍겨 주는) 황수건을 보았다.
4 ⑤

달밤_이태준

해제 이 글은 아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각박한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아픔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황수건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나’는 황수건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소외된 인물에 대한 연민을 강조하고 현실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못난이의 삶에 대한 연민

특징 • 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서술함.
•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전체 줄거리

발단 ‘나’는 황수건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못난이임을 알게 된다.
전개 신문 보조 배달을 하는 황수건은 원배달이 되기를 소망한다.
위기 ‘반편’이라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원배달이 되지 못한 황수건은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한다.
절정 참외 장사가 망하고 아내마저 도망간 황수건은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포도를 훔쳐 가져다주었다가 포도원 주인에게 잡힌다.
결말 ‘나’는 달을 쳐다보며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보고서는 연민을 느낀다.

내신 척척 02 달밤

1 ⑤ 2 ② 3 달밤

- 이 글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직한 사건을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서사 갈래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진술하는 형식이 많아 서술의 시제도 과거형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극 갈래처럼 공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은 황수건의 인물됨에 대한 '나'의 평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나'는 황수건을 '못난이'라고 칭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황수건이 성북동의 자연환경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나'는 우둔하고 천진스러운 황수건을 통해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 '나'는 황수건을 보고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고 하고 있다.
- ㉢에서는 개의 크기를 실상보다 지나치게 크게 표현한 과장법이 사용되고 있다. ㉤에서도 입의 길이를 실상보다 지나치게 불러서 나타낸 과장법이 사용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도치법, ② 대유법, ③ 의인법, ④ 직유법

82~83쪽

내신 척척 02 달밤

1 ④ 2 ⑤ 3 ② 4 반면

- 이 글에서는 오로지 원배달이 되는 것을 꿈으로 삼은 황수건과 이런 황수건을 수용하지 않고 그의 꿈을 좌절시킨 각박한 사회 현실 사이의 갈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 '나'는 원배달이 되는 것을 소원하던 황수건이 보조 배달마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못난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회 현실을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황수건에게 연민하고 동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황수건이 똑똑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문 배달에서 떨어지게 되자 '나'는 황수건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나'가 언급한 '세상의 야박함'은 사회적 약자가 살아가기 힘든 각박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황수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새로 온 원배달의 말에서 알 수 있다. 황수건에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그가 잘되기를 바라는 '나'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황수건의 부족한 모습만을 주목하며 그를 '반편'이라고 부르고, 사회 속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황수건이 포도원 주인에게 매를 맞은 것은 황수건이 '나'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황수건의 모습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곳곳하게 이겨 내려는 민중의 의지를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가 황수건이 가져다준 포도를 가져 먹은 것은 황수건이 준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므로 여기에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게 삼 원 돈을 받고 황수건이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가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꾸밈없이 표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황수건의 천진난만한 성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가 황수건을 알은채하지 않고 숨은 것은 황수건이 '나'에게 훔친 포도를 가져다준 일로 무안해할까봐 그런 것이므로 여기에는 '나'의 배려심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어수룩한 황수건이 계속되는 실패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도시의 번두리에 거주하는 빈민들이 사회와 일상에서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알 수 있다.

- ㉠ '참외 세 개'는 황수건이 참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달한 물건이다. 그러나 황수건이 참외 세 개를 주고 간 후에도 포도를 훔쳐서까지 '나'에게 가져다준 것으로 보아, 그의 행동에 '나'에게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소설의 제목이며, '결말' 부분의 배경인 '달밤'은 황수건이 처해 있는 힘든 현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환한 달빛의 이미지를 통해 비극적인 결말을 막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내신 척척 03 종탑 아래에서

1 ④ 2 ⑤ 3 ⑤ 4 섬멸, 궤멸

종탑 아래에서_윤홍길

해제 이 글은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소녀와 그 소녀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나'는 전쟁의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된 명은에게 호기심과 연민을 갖게 되어 명은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종을 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공감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주제 사랑과 연민을 통한 전쟁의 아픔 극복

특징

- 구체적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하여 작품의 사실감을 높임.
- 어린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전쟁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전쟁의 잔인함을 더욱 부각함.

전체 줄거리

수독 부분

외화(도입) 환갑이 다 되어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호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한다.

발단 '나'는 어느 날 군청 관사 정원을 지나다가 앞을 못 보는 명은을 보고 놀라 달아난다.

전개 외할머니의 부탁으로 명은과 친구가 된 '나'는 전황을 전달한 일로 명은과 갈등하지만, 종소리를 계기로 화해를 한다.

위기 '나'가 명은에게 백마 이야기를 들려주자, 명은은 종을 치고 싶다고 요구한다.

절정·결말 '나'는 종탑에 가서 결국 명은과 종을 치고, 명은의 울음소리와 함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외화(종결) 건호의 이야기를 들은 초등학교 동기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 이 소설의 시점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 소설은 세상을 잘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을 통해 전쟁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은 '나'가 '계집애(명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남인 것을 알아채고 놀라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계집애'도 '나'가 지에밥을 훔쳐 먹기 위해 관사에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전쟁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이 소설의 배경이 6·25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은 '나'가 새로운 인물을 만날 것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알 수 있다.
③ ㉠은 '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호기심이 많은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다.
④ ㉠은 '계집애'의 눈길이 '나'가 뒷걸음질 치는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계집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계집애(명은)'가 '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낌새를 채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섬멸'은 '모조리 무찔러 멸망시킴.', '궤멸'은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짐. 또는 그렇게 만들.'의 뜻으로 이 두 단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인명 살상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는 전쟁의 반생명성과 폭력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88~89쪽

내신 척척 03

종답 아래에서 2

1 ⑤ 2 ① 3 ③ 4 앞을 못 ~ 맨 처음이란단.

- <보기>의 ㉠은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작품에 반영된 시대, 현실 등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한 것은 6·25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인물의 처지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 ⑤이다.

- '나'는 명은을 만나고 싶어 관사에 찾아갔지만 정원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던 중 명은이 외할머니에게 팔을 붙들려 두려움을 느끼지만(㉢), 곧 명은이 외할머니에게 명은의 눈이 멀게 된 사연을 듣고 명은을 걱정하는 명은이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게 된다(㉣).
- ㉤은 '나'가 명은과 어울려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랑 동행해서 '나'의 집을 확인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 명은이 외할머니는 명은이 장남이 된 사연을 말한 후, 다시 '나'의 손을 움켜쥐고 명은이 고양이 말고 사람을 말동무로 삼은 것은 '나'가 맨 처음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 이는 '나'가 앞으로 전쟁으로 인한 '명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90~91쪽

내신 척척 03

종답 아래에서 3

1 ② 2 ⑤ 3 ⑤ 4 자신의 당부를 잊고 명은에게 전황을 이야기하여 상처를 준 것을 꾸짖는 마음과 '나'가 다시 놀러 온 것에 대한 반가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이 글에서는 '나'와 명은의 외적 갈등, 명은과 사회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나'와 명은의 외적 갈등은 '나'가 전쟁 상황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명은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명은과 사회의 외적 갈등은 명은이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화를 내는 명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면서 명은을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명은에게 전황을 전해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나'와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말을 듣기 싫어하는 '명은'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② '종소리'를 계기로 '나'와 명은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둘은 서로 화해하게 된다.

③ 명은이 '나'가 전하는 전황을 듣고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은이 6·25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것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명은과 사회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글에서는 '나'가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명은에게 계속 전황을 전하면서 둘의 외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 ㉠에서 명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명은이 이미 '나'를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고 있는 모습이므로, '나'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명은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4 명은이 외할머니는 '나'가 자신의 당부를 잊고 명은에게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을 계속한 것을 꾸짖고 싶지만, 동시에 명은의 유일한 친구인 '나'가 다시 찾아와 명은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 고마워 ㉓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나신 척척 03

종답 아래에서

4

92~93쪽

- 1 ㉒ 2 ㉓ 3 ㉓ 4 종소리를 올리면 자신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 1 '위기-㉒'에서 '나'는 자신이 딸고만이 아버지에게 예바르게 인사를 한 것은 여느 때와 판판으로 구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평소 '나'가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을 치는 모습을 존경했다고 볼 수 없다.
- 2 삽입된 우화에서 백마는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점, 종소리를 통해 희망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이 글의 명은과 대응된다. 그러나 명은이 가진 상처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설 명은 적절하지 않다.
- 3 ㉑에는 청각을 촉각화하여 나타낸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이 사용된 것은 '물소리(청각)'를 '시리다(촉각)'로 표현한 ㉓의 시구이다.
- 4 명은은 '나'에게 백마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종소리를 올리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게 된다.

나신 척척 03

종답 아래에서

5

94~95쪽

- 1 ㉓ 2 ㉓ 3 ㉓ 4 청각적 이미지로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준다.

- 1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나'의 도움으로 교회의 종을 울리게 된 명은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슬픔을 해소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는 '나'의 연민과 사랑이 전쟁 때문에 생긴 명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㉑은 명은이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막지 못하게 해 달라고 '나'가 소원을 비는 것이다. 이는 '나'가 딸고만이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명은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배려가 드러난 장면이므로 ㉓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1 ㉑은 직유법, 활유법을 사용하여 종답의 거대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일을 저지르기 전의 '나'의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 ㉑은 밭줄에 나란히 매달려 함께 건공중을 오르내리는 '나'와 명은의 모습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4 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의 마구잡이 매타작으로부터 명은을 지켜 주기 위해 '나'가 희생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 5 ㉑은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와 명은을 밭줄에서 떼어 내려다가 결국 같이 종을 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에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방해자에서 조력자가 되었음이 나타난다.

- 3 '종소리'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명은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동시에 명은의 여리고 순수한 소원, 구원의 희망을 의미한다. 이런 '종소리'는 명은의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높이 솟구쳐 오름으로써 명은의 소원을 하늘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 4 이 글은 종을 울리고 난 후의 상황을 별도로 서술하지 않고, 중요한 상황에서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장면만을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마무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말은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결말 이후의 상황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나신 척척 04

마지막 땅

1

96~97쪽

- 1 ㉓ 2 ㉒ 3 ㉑ 4 서울 것들

마지막 땅_양귀자

해제 이 글은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으로, 성장과 소외, 풍족과 빈곤이 치열하게 공존했던 1980년대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급속한 도시화의 열기 속에서 농경지의 가치가 무참히 짓밟혀 버리는 당시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땅을 경작을 위한 공간으로 보며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강 노인'과, 땅을 이익 창출의 공간으로 보며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동네 사람들' 및 '강 노인의 가족들' 간의 대립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제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세태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특징 • 1980년대 원미동이라는 구체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룸.
• 방언 사용을 통해 원미동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사실감 있게 드러냄.

전체 줄거리

발단 강 노인은 원미동의 땅값이 황금값이 되었지만 자신의 남은 땅을 팔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

전개 강 노인은 땅에 농사를 짓는 문제로 동네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다.

위기 동네 사람들은 점차 불만이 쌓여 강 노인을 압박하며 농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절정 강 노인이 땅을 팔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 달라며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다.

결말 강 노인은 땅을 팔려고 강남 부동산으로 가다가 밭에 물을 주기 위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 1 강 노인이 전라도 출신인 박 씨 부부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박 씨 부부가 전라도 출신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물질적 이익만 중시하며 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 노인은 박 씨 부부를 다른 원미동 사람들과 동일하게 모두 ‘서울 꼬나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갈등은 지역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땅을 대하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은 원미동 동네 사람들과 갈등하는데, 이는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② 강 노인이 땅을 팔지 않고 발농사를 짓는데 여름이면 밭에 쓰는 인분 냄새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다. 또한 박 씨 부부는 강 노인으로 하여금 땅을 팔게 해서 이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 노인을 회유하고 있다.

④ 여름에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 때문에 화가 난 동네 사람들은 겨울에 연탄재를 밭에다 버림으로써 불만을 표출한다.

⑤ 강 노인은 땅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농사짓기를 고집하고 있으므로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2 박 씨 부부는 강 노인이 땅을 팔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강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강 노인이 그동안 땅을 잘 관리해 왔음을 치켜세우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 3 [A]에서 박 씨는 강 노인에게 땅값이 더 오를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 땅을 팔도록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박 씨는 땅을 금전적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값이 비쌀수록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강 노인은 생명을 기르는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땅값에만 신경 쓰는 박 씨 부부와 원미동 사람들을 ‘서울 것들’이라고 부르며 비판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

98~99쪽

내신 척척 04 마지막 땅 2

1 ⑤ 2 ② 3 ② 4 연탄재, 도로 주변 미화 사업

- 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글에 등장하지 않은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과 더불어 강 노인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의 내면 심리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2 은혜 엄마는 지난날 두 번째 겻돈을 탄 후, 그 겻돈을 경국이 엄마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다. 이 글을 통해 경국이 엄마가 계모임의 일원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은혜 엄마가 받을 순서의 겻돈을 먼저 받아 간 것도 아니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 ㉠에서 강 노인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밭이 동네 사람들이 던진 연탄재 때문에 엉망이 된 것을 보고 황망함을 느끼고 있다. ㉡에서 강 노인은 연탄재를 뒤집어서 살릴 수 없는 고추 모종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4 ‘연탄재’와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라는 말을 통해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1980년대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가정에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제 스포츠 대회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100~101쪽

내신 척척 04 마지막 땅 3

1 ⑤ 2 ⑤ 3 ③ 4 햇살은 ~ 있었다

- 1 이 글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마지막 땅을 팔기 위해 강남 부동산으로 향하던 강 노인이 밭에 있는 고추 모종에 물을 주기 위해 집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는 땅이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땅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2 강 노인에게 땅은 자식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정서적 위안을 주는 공간이며,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수확을 거두는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강 노인은 땅이 주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생명을 기르는 공간으로서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3 ㉢의 ‘설익은 도시’는 서울이 아니라 원미동이 있는 부천시를 가리키는 말로, 과도한 개발 바람에 휩싸여 삶의 기본과 중심을 잃게 된 도시를 의미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강 노인의 아내는 자식들의 빛을 ‘발등의 불’이라고 표현하였다.
- ② 강 노인은 서울의 주택난 때문에 부천시 원미동으로 온 사람들을 ‘서울 것들’이라고 표현한다.
- ④ 자식들이 벌린 일 즉, 빛을 낸 일을 강 노인이 거두어야 한다는 말이므로 자식들의 빛을 대신 갚는 일을 의미한다.
- ⑤ 마누라가 발농사에 덤덤해한다는 것은 발농사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결말-㉣’의 ‘햇살은~있었다.’는 땅을 팔러 가는 강 노인의 복잡한 심정과 상반되는 원미동의 풍경을 서술한 부분으로, 허탈한 강 노인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102~103쪽

내신 척척 05 최척전 1

1 ⑤ 2 ① 3 ③ 4 ㉠: 남원, ㉡: 구례, ㉢: 명나라(소흥부)

최척전(崔陟傳)_조위한

해제 이 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고전 소설이다. 전쟁으로 인해 최척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재회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 글은 평범한 인물이 전란 중에 겪는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영

웅의 활약상에 주목했던 당시 대부분의 군담 소설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대외 무역이 활발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안남(베트남) 등으로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주제 전쟁 때문에 겪은 가족 이산의 고통과 재회

특징

-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소설로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17세기에 나온 다른 군담 소설들과 달리 민족적 영웅담을 담아내지 않고 평범한 인물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표현함.

전체 줄거리

수 목 부 분	발단	최척은 정 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던 중, 옥영을 만나 혼인하여 몽석을 낳는다.
	전개	정유재란의 발발로 최척과 그 가족들은 조선, 일본, 중국 등지로 흩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최척과 옥영은 안남에서 극적으로 재회하고 중국으로 가서 살다가 몽선을 낳는다.
	위기	최척이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되어 가족과 다시 헤어지게 된다.
	절정	최척과 몽선은 전쟁 중 포로로 우연히 만나 조선으로 탈출하고, 옥영은 몽선과 머느리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간다.
	결말	온 가족이 20여 년 만에 남원에서 재회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1 이 글에서는 '1597년 8월'과 같이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남원', '연곡', '구례' 등과 같이 실제 장소를 공간적 배경으로 언급함으로써 글에 사실성과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 우의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에서는 정유재란으로 인해 최척과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들 이후 최척과 옥영이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지낼 때의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③ 이 글에서는 사회와 인물 간 또는 운명과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질 뿐, 인물들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꿈과 현실을 교차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에서 옥영이 남장을 한 것은 전쟁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다. 이 글에서 옥영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에 구애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3 ㉡는 최척의 가족 역시 왜적에게 죽거나 끌려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말로, 최척은 이 말을 들은 후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각골통한(刻骨痛恨)'이다.

오답풀이 ① '일각삼추(一刻三秋)'는 '매우 짧은 시간이 삼 년 같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리거나 지루한 느낌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②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④ '상재지탄(傷哉之歎)'은 '살림이 가난하고 궁색한 데 대한 탄탄'을 의미한다.

⑤ '함포고복(含哺鼓腹)'은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4 왜적에게 남원이 함락되자, 최척은 가족들과 함께 남원에서 지리산 연곡으로 피란을 떠났다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 구례를 찾아간다. 최척은 다시 지리산 연곡을 찾아오지만, 왜적에 의해 가족들이 흩어진 것을 알게 된다. 이후 최척은 고향인 남원으로 돌아와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만나고, 여유문을 따라 명나라 소흥부로 떠나게 된다.

104~105쪽

나신 척척 05 최척전 2

1 ㉠ 2 ㉡ 3 ㉢

1 옥영이 돈우를 따라 일본에 가서도 계속 남자 행세를 하며 지낸 것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들키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기 위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돈우를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최척은 난리 속에 헤어진 가족을 생각하여 누이동생과 혼인하라는 여유문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② 돈우는 왜병이지만 불심이 깊어 포로로 잡혀 온 옥영을 아끼며 돌봐 주고 있다. 따라서 옥영에게 돈우는 조력자인 셈이다.

③ 여유문은 최척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도운 명나라 사람이다. 최척과 의형제를 맺고 자기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최척에 대한 신임이 매우 두터움을 알 수 있다.

⑤ 주우는 최척과 절친한 사이로, 최척이 속세를 버리고 은거하려고 할 때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설득하여 함께 장사배를 타기로 한다.

2 [A]에서 주우는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려고 하는 최척에게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스스로 괴롭히면서 산 귀신과 이웃이 되려 하는가?"와 같이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그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최척에게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에서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의미하는 것은 옥영과 최척의 재회이다. 그리고 ㉡에서 주우가 최척에게 배를 타고 오가면서 장사를 하자고 권하는 것은 이미 돈우와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있던 옥영과 재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오답풀이 ① ㉠의 주우는 최척의 조력자로 볼 수 있지만, 최척에게 새롭게 나타난 조력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의 부처는 중요 대목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조력자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또한 부처의 말에서 '좋은 일'은 조력자를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최척을 만난다는 뜻이다.

② ㉠과 ㉡ 모두 인물들이 처할 새로운 고난을 암시하지 않는다.

③ ㉠은 옥영이 절망적인 태도를 버리고 삶에 희망을 찾게 된 계기로 작용한다. 하지만 ㉡은 최척이 속세를 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⑤ ㉠을 통해 이 글이 창작될 당시에 불교적 세계관의 영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을 통해서도 당시 상업과 대외 무역이 발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유랑하는 삶을 살며 남은 생애를 보냈다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 ② 2 ② 3 ④

- 1 옥영이 시를 읊으며 탄식하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옥영이 지은 시는 옥영 자신의 이산의 아픔을 계기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최척과 함께 지낼 때 지었던 것이므로 ②의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최척과 옥영을 통해 당대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임진왜란 등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희생과 참상을 불러왔다. '전개 3-④'에서 최척의 사연을 듣고 분노하는 백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은 국적을 초월하여 각국 백성들이 아픔과 연민을 공유하게 함을 알 수 있다.

④ 이 글에는 대부분의 군담 소설과 달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최척은 왜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고 가족들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유랑하는 평범한 인물일 뿐이다.

⑤ 최척과 옥영이 조선이 아닌 중국과 일본을 거쳐 안남 지역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 장면은 대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일본 배에서 들린 염불하는 소리는 최척의 심리를 더욱더 슬프게 하여 결국 최척이 통소 연주를 하게 만든다. 최척의 통소 연주는 결국 옥영과의 재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므로, 인물에게 불길한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 최척과 옥영은 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우연히 안남에서 재회를 하게 된다. 두 사람의 재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척이 옥영을 그리워하며 불었던 '통소 소리'와 이에 시험 삼아 답을 한 옥영의 '칠언 절구 읊는 소리'이다. 두 사람은 이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가까이에 있음을 알아채게 된다.

1 ③ 2 ⑤ 3 ③ 4 ④

춘향전(春香傳)_작자 미상

해제 이 글은 춘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랑과 갈등을 그린 판소리계 소설이다.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형성된 적층 문학으로 근원 설화에서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정착되었다. 이 작품은 이몽룡과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표면적 주제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과 탐관오리에 대한 서민의 저항 의식을 이면적 주제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는 당대의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민중의 꿈과 소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런 주제 의식을 해학적인 표현과 토속적 어조, 판소리 문체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주제 •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표면적)
• 의롭지 못한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면적)

특징 •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드러남.
• 해학과 풍자에 의한 골재미가 나타남.

전체 줄거리

발단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퇴기 월매의 딸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으나 부친이 다른 곳으로 부임하면서 이몽룡도 떠나게 돼 춘향과 이별을 하게 된다.

전개 새로운 남원 부사인 변학도는 춘향을 불러내어 수청을 강요한다. 춘향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하다가 모친 고문을 겪고 옥에 갇히게 된다.

위기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된다. 이몽룡은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변 사또가 학정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분을 감춘 채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간다.

절정 절인의 행색으로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간 이몽룡은 암행어사로 출도하여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춘향을 구한다.

결말 이몽룡이 춘향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여 백년해로한다.

- 1 '전기적(傳奇的) 요소'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고전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러나 이 글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전기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판소리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4·4조의 운문체가 산문체와 섞여 나타나 있다.

② 서민 예술로 출발한 판소리는 양반에게까지 파급되면서 평민층의 속어 및 재담과 양반의 한문투의 언어가 같이 사용되는 이원적 성격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판소리가 소설로 기록된 것이 판소리계 소설이므로 양반 계층과 평민 계층의 언어가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④ 판소리계 소설은 서민들이 향유하면서 전승하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작된다. 이는 구비 전승되는 동안 판소리 창자의 개성이 가미되었거나, 청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예술인 판소리가 그 청중의 현실이나 의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⑤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풍자와 해학 등의 골재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풍부하게 구사되는데, 이는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낙천적 민족성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 2 본관은 탐관오리의 전형적 인물로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을 의미하는 '가렴주구(苛歛誅求)'가 어울린다.

오답풀이 ①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본관이 위정자의 힘을 빌려 위세를 부리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이라는 의미이다. 이 글에서 본관은 백성들을 착취하여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 인물이므로 이 한자 성어를 통해 본관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무위독식(無爲徒食)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이라는 의미이다. 이 글에서 본관은 일을 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학정을 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물에 해당하므로 이 한자 성어를 통해 본관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흑세무민(黑世誣民)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본관이 백성들을 속이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3 [A]는 어사또와 본관 사또의 갈등 해소가 아니라 어사또가 앞으로 본관 사또를 징벌할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 4 판소리 공연에서 전승된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㉔은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민하지 않고, 화려하게 생일잔치를 하는 본관 사또에 대한 어사또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서술하고 있다.

내신 척척 06 춘향전 2

110~111쪽

1 ⑤ 2 ② 3 ③ 4 암행어사 출도로

- 1 어사 출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본관과 수령들은 당황스러워하며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글은 이런 위정자들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당대 관리들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따라서 본관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았다고 설명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 대상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의 ‘본관이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새양쥐 눈 뜨듯 하고’에 나타난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대상을 동물에 비유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에서 수령들은 도망을 치는 와중에도 탕건과 갓을 찾고, <보기>에서 양반들은 조롱을 받는 것을 모르고 말뚝이가 치켜세워 주자 좋아한다.
- ③ ㉠과 <보기>는 각각 해학과 풍자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어 있다. 해학과 풍자의 표현 방식은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④, ⑤ ㉠은 어사 출도에 당황한 수령들과 본관 사또의 모습을 열거와 대구에 의한 확장적 문체를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보기>는 유사한 발음을 사용한 언어유희로 신분상 특권 계층인 양반을 조롱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3 ㉡은 단어의 위치를 뒤바꾼 도치를 통한 언어유희로 ③이 이와 유사하다. ②는 비슷한 구절의 반복, ①, ④, ⑤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 4 암행어사 출도로 사건이 전환되고 장면의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

내신 척척 06 춘향전 3

112~113쪽

1 ② 2 ① 3 ③ 4 ④ 5 추절, 이화 춘풍

- 1 춘향이 어사또를 원망하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낭군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춘향이 어사또를 보고 난 후에는 자신의 절개를 시험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낭군과 재회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절정 4-㉠’에서 어사또는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 내 수절도 거역할까?”라는 말을 하며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고 있다.
- ③ ‘결말-㉡’에 제시된 “퇴사(退仕) 후 정령부인으로 더불어 백년동락 할새”라는 서술자의 말을 통해 어사또가 벼슬에서 물러나 춘향과 백년해로의 시간을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절정 4-㉠’에 제시된 “다 각각 문죄(問罪) 후에 무죄자 방송(放送)할 새”라는 부분을 통해 어사또가 옥수들을 각각 문죄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풀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절정 4-㉡’에 제시된 “층암절벽(層巖絶壁) ~ 눈이 온들 변하리까?”라는 말을 통해 춘향이 그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수의 사또의 수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이 글에서 어사또인 이몽룡은 양반이고, 춘향은 기생의 딸로서 신분 차이가 다르다. 따라서 춘향이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 이몽룡과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는 신분 상승을 향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도미와 도미아내는 모두 백제의 평민이므로 신분이 같다. 따라서 <보기>에서 신분 상승을 향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② 이 글의 춘향은 본관 사또의 수청요구를 거절하며 정절을 지키고 있고, <보기>의 도미아내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정절을 지키고 있다.
- ③ 이 글과 <보기>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고통을 받은 여인이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같은 열녀 설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이 글의 춘향은 본관에 의해 옥살이를 하는 고초를 겪고, <보기>의 도미는 왕에 의해 두 눈이 멀게 되는 등의 고초를 겪는다.
- ⑤ 춘향과 도미의 아내는 모두 권력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지만 정절을 지켜 낸 여인들이고, 본관 사또와 왕은 두 여인들에게 시련을 주는 권력자이다.
- 3 ㉠은 춘향이 백성을 괴롭히던 기존의 본관 사또와 다를 바가 없는 수의 사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한 말이다. 이 말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한자 성어로는 ‘폴빛과 녹색(綠色)은 같은 빛깔’이라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게 마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초록동색(草綠同色)’이 해당된다.
- 4 ㉡과 ㉢은 ‘춘향의 절개’를 ㉠, ㉡, ㉢은 ‘춘향 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한다.
- 5 ‘추절(秋節)’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과 춘향의 시련을 상징하는 ‘본관 사또의 수청 요구’를 의미하고, ‘이화 춘풍’은 ‘오얏꽃에 부는 따뜻한 봄바람’과 이(李)몽룡의 ‘이(李)’와 발음이 유사하여 ‘이몽룡’을 뜻한다.

내신 척척 07 허생전 1

114~115쪽

1 ④ 2 ③ 3 과거 4 ⑤

허생전(許生傳) _ 박지원

해제 이 글은 연암 박지원이 지은 대표적인 한문 소설이다. ‘허생’이라는 비판적 지식인을 통해 당대의 무능한 사대부 지배 계층을 비판함과 동시에 18세기 후반의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고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주인공 허생의 활동과 말을 통해 관념적 유교 사회를 비판하고, 중상주의 사상, 이상국 건설, 시국 대처 방안 등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중시하는 양반 계층과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

특징 •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함.
•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미완의 결말 구조임.

전체 줄거리

- 발단** 목적곡의 선비 허생은 돈을 벌어 오지 못한다는 아내의 질책에 공부를 포기하고 집을 나선다.
- 전개** 허생은 변 씨에게 돈을 빌려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하여 큰돈을 번다. 그리고 빈 섬으로 군도들을 데리고 가 이상국 건설을 시험한다. 빈 섬에서 나온 허생은 조선에 돌아와 변 씨에게 돈을 갚고 그와 친분을 맺는다.
- 위기** 변 씨의 주선으로 허생을 만난 이완은 나랏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 허생이 제안한 세 가지 계책을 들던 이완은 명분을 내세우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 절정** 허생은 양반 사대부들의 허례허식과 조정의 탁상공론을 비판하고 이완을 질책한다.
- 결말** 이튿날 이완이 허생의 집을 다시 찾았으나, 집은 비어 있고 허생은 종적을 감춘 후였다.

- 고전 소설에는 주로 성격과 행동 양식에 변화가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평면적 인물이다.
- 허생의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요구하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생계를 위한 요구를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관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오답풀이 ①, ② '발단'을 통해 허생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밥을 먹기도 힘든 지경이지만, 긴 시간 동안 돈을 벌지 않고 독서만 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허생이 독서를 과거를 통해 출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지 않는 모습에서 학문의 순수성과 학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전개 1'에서 변 씨는 처음 보는 허생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흔쾌히 들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대상다운 대범함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전개 1'에서 변 씨는 "대체로 남에게 ~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라고 하며 허생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 그의 이인(異人)적 면모를 알아보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 허생의 아내는 '과거'를 보지 않으면 글 읽기(학문)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허생의 아내는 '과거'를 보아 출세하는 것을 학문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은 싹피, 갓신, 갓, 도포, 코 등 허생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허생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내신 척척 07 허생전 2

116~117쪽

1 ⑤ 2 ④ 3 ⑤ 4 빈 섘

- 허생은 군도들과 대화하며 최소한의 생계도 꾸려 나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들이 도둑이 되었음을 애기하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허생은 군도들에게 배에서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며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빈 섬으로 가자는 회유를 하고 있다.

- 허생이 군도들을 이끌고 섬에 들어간 행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이상향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허생의 행동을 오늘의 우리 사회에 반영한다면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정책 또는 이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해당될 것이다.
- 이 글의 군도들은 경제 구조의 모순과 집권층의 무능을 비판하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군도들을 통해 허생의 신통한 재주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③ 군도들도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평범한 백성들이다.
②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일 인당 한 냥밖에 돌아가지 않는 것에서 군도들이 도둑질을 하지만 여전히 굶주림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군도들은 허생과 함께 '빈 섬'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는 등 이상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허생은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군도들을 모아 '빈 섬'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빈 섬'은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허생의 시험적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신 척척 07 허생전 3

118~119쪽

1 ④ 2 ③ 3 ㉠: 독점(매점매석), ㉡: 가격 상승

- 변 씨와의 대화에서 허생은 조선은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다니지 못해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진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배와 수레를 이용한 물자의 이동이 활발했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허생의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 지요."라는 말을 통해 당시 조선이 자급자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허생의 "줄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 같은 분은 ~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통해 훌륭한 인재들이 벼슬에 오르지 못해 능력을 펼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③ 허생의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라는 말을 통해 당시 조선은 해외 무역이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변 씨의 "사대부들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고자 하니"라는 말을 통해 당시 사대부들이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 치욕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변 씨는 허생이 오 년 동안에 큰돈을 번 방법과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궁금해하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때 자신이 선뜻 만 냥을 꾸어 줄 줄 알고 찾아왔냐고 허생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변 씨는 허생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허생은 독점(매점매석)을 통해 큰 이익을 남겼으며, <보기>의 경장상인들 역시 쌀의 독점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1 ⑤ 2 ⑤ 3 ②

1 이 글에서는 지배층이 대국의 황포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허생이 명나라 후손들에게 종실의 딸들을 시집보내라고 한 것은 친명배청 사상의 허구성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 이완은 명분을 중시하고, 보수적이며, 현실 개혁의 의지가 부족한 사대부 지배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리를 중시하는 허생의 급진적인 제안을 지지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이완은 허생의 제안을 사대부들이 수용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생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 그의 제안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허생의 세 가지 제안에는 허생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완 역시 허생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지 않다.

③, ④ 이완은 허생의 제안이 시대를 앞서는 급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는 허생의 제안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3 이 글은 인물 간의 갈등을 남긴 채 작품이 끝나는 미완의 결말 방식을 취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동시에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1 ③ 2 ② 3 ③ 4 우주 나무

한 그루 나무처럼 윤대녕

해제 이 글은 우연한 계기로 참나무와 인연을 맺은 글쓴이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잘 드러난 수필이다. 글쓴이는 약수터 옆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내 주었던 인연을 바탕으로 참나무와 교감을 나누며 지내게 된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변화하였음에도 참나무는 겉모습만 변하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다. 글쓴이는 이런 참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내고,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하며 살아갈 것을 담담하게 밝히고 있다.

주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

특징 •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표현함.
•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드러남.

처음	중간	끝
글쓴이는 주말마다 혼자 산에 오름.	글쓴이는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낸 일을 계기로 참나무와 인연을 맺음.	글쓴이는 계절의 변화에도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참나무를 봄.
사색하고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진.	마음이 어지러울 때 위안을 받고, 참나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함.

1 글쓴이를 대신하는 가공의 서술자가 줄글 형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소설의 특성에 해당한다. 수필은 글쓴이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2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글쓴이는 사소한 일에 자주 마음이 흔들리는 편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가 처음 녹슨 대못이 박힌 참나무를 발견했을 때, 대못을 빼내 주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결국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쓴이가 처음 혼자 산행을 할 때에는 적극적인 감이 없지 않았으나, 습관이 되니 오히려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글쓴이가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참나무를 찾아가 위로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글쓴이가 참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기도한 후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글쓴이는 계절의 변화에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사소한 일에 흔들리고, 상처받은 것을 원망하며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을 뿐, 가진 것을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4 '중간 1-㉠'에서 글쓴이는 옛 신화에 나오는 '우주 나무'를 소개하며 자신에게는 평범한 참나무가 '우주 나무'임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나무가 글쓴이에게는 힘들 때마다 위로를 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① 2 ② 3 ⑤ 4 ②

수오재기(守吾齋記) 정약용

해제 이 글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집 이름을 소재로 하여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기록한 수필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수오재'라는 이름에 의문을 가지다가 만물 중 지켜야 할 것

내신 척척 10

결혼 1

1 ④ 2 ⑤ 3 ③ 4 넥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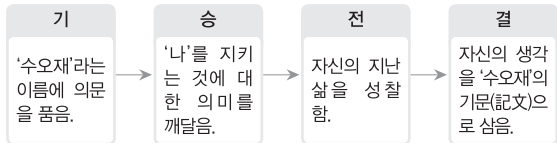
은 본질적 자아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과거를 보고 관직 생활을 하다가 귀양 길에 오른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며 현상적 자아에 매달렸던 일을 반성하고,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제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함.

특징 • '수오재'라는 집 이름을 소재로 하여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기록함.

• 글쓴이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구체화함.

한눈에 보기



- 1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자신의 말을 직접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있지만, 대화를 제시한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② '승'에서 글쓴이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천하 만물 중에는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③ '결'에서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④ '기'에서 글쓴이는 '수오재'라는 집 이름을 의아하게 여기며 왜 '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⑤ '전'에서 글쓴이는 귀양 길에 오른 경험을 통해 '나'를 지키지 못한 삶을 구체화하고 귀양지에서 비로소 '나'를 찾았음을 밝히고 있다.

- 2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3 <보기>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자아와 자기 성찰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내면적 자아가 서로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의 글쓴이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라고 하며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상적 자아로부터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아인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글쓴이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다 귀양 길에 오른 자신을 성찰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에서 시 쓰기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② <보기>의 화자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유혹당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며 살다 보면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아를 잃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④ 이 글의 글쓴이가 "나는 '나'에게 말했다."라고 한 것과 <보기>의 화자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라고 한 것에서 둘 다 자아를 돌로 나 누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쉽게 써어진 시_윤동주

- 해제: 이 시는 이국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 주제: 자아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 극복의 의지

- 4 ㉠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현상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본질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혼_이강백

해제 이 글은 한 남녀의 결혼담을 통해 인간의 고민거리인 소유와 사랑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 고찰한 현대 희곡이다. 풍자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현대인들의 소유 관념을 비판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역설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관객들의 소유물을 연극의 소품으로 활용하고, 이야기책 속 사건을 극 중 현실로 바꾸어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실험적인 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특징 •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여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직접 이루어짐.

전체 줄거리

발단 가난한 사기꾼인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빌린 후, 맞선을 보기로 한 여자를 기다린다.

전개 초조한 기다림 끝에 남자는 여자를 만난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이 다 되자 남자는 자신이 빌린 물건을 하인에게 하나씩 빼앗긴다.

위기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한다. 그러나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게 된 여자는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한다.

절정 남자는 소유의 본질과 현실적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설득한다.

하강·대단원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함께 결혼을 하려 간다.

- 1 이 글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쓴 연극 대본의 일부로 희곡에 속한다. 희곡은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며, 대사와 지시문이 현재 시제로 표현된다. 또한 등장인물의 수나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제약을 받는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해설하는 것은 소설의 특징이다.

- 2 이 글에서 하인은 남자에게 빌려준 물건을 빼앗으며 남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하인은 난폭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하인의 행동에 어긋나면서 작품에 희극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오답풀이 ① 하인은 남자에게 빌려준 물건들을 빼앗으며 남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만, 이는 처음에 남자가 물건을 빌릴 때 정했던 시간에 따라 빌린 물건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상황을 왜곡하거나 남자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글에서는 하인이 남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부추기지는 않는다.

③ 하인이 남자와 여자의 화해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사 없이 행동을 통해 극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남자가 하인에게 넥타이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여자가 놀라기는 하지만 하인은 빌려준 물건을 회수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일 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다.

- 3 <보기>를 통해 이 작품은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만 소극장에 모인 사람들(관객)에게 소도구를 빌려야 하므로 관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객과의 소통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무대를 객석과 구분 없이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남자가 하인에게 넥타이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여자가 놀라자,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걸며 넥타이를 빌리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도 연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내신 척척 10 결혼 2

128~129쪽

1 ③ 2 아버지, 주었죠 3 ② 4 ② 5 ⑤

- 1 이 글은 여자와 남자의 대사가 주를 이루며, 여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별명이 '덤'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사를 통해 무대 밖의 사건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③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넥타이'와 같은 소도구를 활용하지만, 이는 주로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거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역할을 할 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이 글에서 극 중 시간의 흐름이 바뀐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으며,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갈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⑤ 일반적으로 극의 지시문을 통해 무대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이 글은 특별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2 '덤'의 일반적 의미는 '조금 더 없어 주는 것'으로, 여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덤'으로 여자(자식)를 주어 여자의 별명이 '덤'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이 작품에서 '덤' 이야기는 남자가 소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아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주제 의식(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다.

- 4 ㉠을 통해 여자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사기꾼에게는 절대 여자를 시집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 남자가 사기꾼으로 밝혀지면서 여자가 결혼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반어적 표현은 원래 의도와는 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므로 ㉠을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여자는 자신이 갑자기 말을 하면 남자가 놀랄 것이라고 하며 자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③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남자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덤'의 의미를 깨달아 눈물이 고이고 있으며, 이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⑤ 남자는 관객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주며 말을 건네고 있다. 이처럼 연극에서, 한 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를 '방백'이라고 한다.

- 5 ㉡에서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사기꾼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현재 남자의 상황과 동일하며, 남자도 아버지와 같은 사기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130~131쪽

내신 척척 10 결혼 3

1 ⑤ 2 ③ 3 ④

- 1 이 글은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게 된 여자가 충격을 받는 장면으로, 구성 단계상 '위기'에 해당한다. 위기 단계에서는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나고 위기감이 고조된다.

오답풀이 ①은 '발단', ②는 '대단원', ③은 '전개', ④는 '하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2 남자는 여자에게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청혼을 하고 있으므로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표정 연기를 하는 것이 좋다(ㄴ). 마지막 부분의 지시문에서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라고 하였으므로 최대한 큰 구두를 준비한다는 설명도 적절하다(ㄷ).

오답풀이 ㄱ.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고 있으므로 담담하게 수용하는 태도로 연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ㄴ. 여자는 남자가 사기꾼임을 알고 고민을 한다. 그러므로 속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ㄷ. 하인은 담담하게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 3 주인이 보낸 경고문을 여자에게 건네주며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가졌던 물건은 모두 빌린 것이고 자신은 빈털터리라고 고백한다. 이에 여자는 남자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자와의 결혼을 망설이게 된다.

132~133쪽

내신 척척 10 결혼 4

1 ③ 2 ⑤ 3 ⑤ 4 ① 5 소유, 사랑

- 1 '절정' 부분에서 남자의 실체를 알아차린 여자가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하자,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여자에게 들려준다. 이에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가는 데, 이는 그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여 보이는 행동이지,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외면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하인은 제한 시간에 따라 빌려준 집을 빼앗기 위해 큰 구두를 신고 남자를 걷어차고 있다.

② 남자는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고 있다.

④ 여자는 하인의 구두발에 걸려온 남자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다급하게 되돌아와 남자를 일으키고 있다.

⑤ 남자는 결혼을 하기 위해 물건을 빌렸으며 여자 또한 남자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떠나려 한다. 이는 물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결혼의 조건을 따지는 현실을 보여 준다.

- 2 남자는 세상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히 아꼈다가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중 자신의 가장 소중한 덤이 '여자'라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여자는 이러한 남자의 말에 설득되어 청혼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 3 여자는 어머니가 사기꾼인 아버지와 결혼한 것처럼 자신도 사기꾼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포자기의 심정을 말했을 뿐이다. 여자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4 ㉑~㉑의 ‘덤’은 여자를 가리키는 호칭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㉑의 ‘덤’은 호칭의 의미보다는 ‘제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 주거나 받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5 이 작품은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진실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신 척척 11

두근두근 내 인생 1

134~135쪽

1 ㉑ 2 ㉑ 3 ㉑ 4 ㉑

두근두근 내 인생_김애란 원작 / 최민석 외 각본

해제 이 글은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김애란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세 살에 조로증에 걸려 열여섯 살의 나이에 여든 살 노인의 신체를 갖게 된 소년 아름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열여섯 살의 아들을 둔 미라와 대수, 부모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어른스러운 아들 아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를 슬프거나 무겁지 않게 그려냄으로써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는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사랑

특징 • 난치병을 앓고 있는 소년의 삶을 담담하고 유쾌한 시각으로 그려냄.
• 인물이 상상하는 장면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형상화함.

전체 줄거리

수목 부분

발단 조로증으로 신체 나이가 여든 살이 넘는 아름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전개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한 아름은 서하라는 소녀와 전자 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진다.

절정 서하가 영화감독 지망생이 꾸며 낸 가상의 소녀였음을 알게 된 아름은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하강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름은 퇴원을 하여 부모님과 추억을 만들어 나간다.

대단원 아름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을 부모님께 선물하고, 숨을 거둔다.

- 1 이 글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영상을 만들 때 시간, 비용, 편집 등의 여건을 갖출 수 있다면 시·공간적 배경 및 등장인물의 수에 대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에 비해 희곡은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상연되기 때문에 시·공간적 배경 및 등장인물의 수에 대한 제약이 크다.

- 2 여학생 2는 아름이 방송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후 거침없이 아름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여학생 2가 아름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여학생 1은 “빨리 건강해져.”라고 하며 아름의 병이 낫기를 기원해 주고 있다.

③ 대수는 30대 부모와, 여자가 택시를 타기 전에 아름과 함께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다.

④ 여자는 택시 안에 있는 아름을 보고 비명을 지른 후 대수에게 짜증을 내며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⑤ 남편과 부인은 택시 안에 있는 아름을 본 후 아름이 방송에 나온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며 반가워하고 있다.

- 3 S# 8은 대수의 택시를 배경으로 한 장면으로, 택시를 탄 손님들이 아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㉑~㉑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Cut to(컷 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4 아름은 몸이 불편하여 평범한 생활을 못 하는 자신과 달리 건강한 모습으로 학원에 들어가는 또래의 여학생들을 보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을 보는 아름의 눈에는 ‘부러움’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신 척척 11

두근두근 내 인생 2

136~137쪽

1 ㉑ 2 ㉑ 3 ㉑ 4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

- 1 S# 16에서는 아름이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동정 어린 시선 때문에 창피해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호기심이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S# 16을 감상한 후 사회적 약자를 호기심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아야겠다는 반응을 할 수 있다.

- 2 ㉑에서 미라는 사람들이 편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몇 몇하게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라가 당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㉑는 아름이 사람들의 시선을 창피해하는 것을 알아챈 미라가 아름에게 너는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다는 격려로써 하는 말이다. ㉑의 명언 역시 ‘고개를 떨구지 말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협력적 사고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명언이다.

② 시련은 사람을 단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명언이다.

③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내용을 담은 명언이다.

④ 노력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명언이다.

- 4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는 아름이 자신의 병색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이것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아름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1 ③ 2 ③ 3 ④

1 아름이 전자 우편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설렘을 느끼는 서하에게서 답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름이 전자 우편을 반복해서 확인할 때에는 지루함보다는 조바심이 드러나도록 연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S# 52는 주로 밝고 아름다운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화면을 밝게 편집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아름은 서하의 손 사진을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보고 있으므로 소품으로 태블릿 컴퓨터를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아름은 서하의 손 사진을 보고 서하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애뜻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아름이 서하의 손 사진에 손을 갖다 댈 때에는 애뜻한 느낌의 음악을 깔아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⑤ 아름이 기다리던 서하의 전자 우편을 받고 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아름의 떨리는 손을 크게 찍는 것은 적절하다.

2 S# 52에 나열된 소리와 이미지는 모두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들이다. 따라서 아름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살고 싶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3 ㉠의 몽타주는 서하가 전자 우편의 꼬트머리에 쓴 “아름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에 대한 답장이다(㉠). 그리고 이 몽타주는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각각의 ‘이미지’와 아름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풀이 ㉠. ㉠의 몽타주는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라고 생각하는 것을 특별한 순서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소리’에 사용된 말줄임표는 “나는 살고 싶어져.”라는 말을 줄였을 때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능 통통 01 봄·봄

140~142쪽

내용 확인 문제 1 ○ 2 바짓가랑이(바짓가랑이) 3 ×

1 ② 2 ① 3 ①

봄·봄_김유정

해제 이 글은 마음인 장인과, 데릴사위로 와서 성례를 하지 못하고 장인 집의 농사일을 도맡아 하는 ‘나’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1930년대 소설이다. 어수룩한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독백 형식으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고 있으며, 토속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사투리와 비속어, 일상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역순행적 사건 구성을 통해 핵심적인 장면을 강조하고 해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주제 성례를 둘러싼 장인과 사위의 갈등, 산골 남녀의 순수한 사랑

- 특징**
-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극적 긴장감과 해학성을 높이고, 여운의 효과를 살림.
 - 토속어와 비속어, 희극적 상황을 통해 해학성을 높임.

전체 줄거리

발단 ‘나’는 점순과 성례하기 위해 점순네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와 3년 7개월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

전개 ‘나’는 장인에게 성례를 재촉하라는 점순의 충동질로 구장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성례를 이루는 것에 실패한다. 뭇대는 어수룩한 ‘나’의 행동을 비판한다.

절정 점순의 두 번째 충동질로 ‘나’는 장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된다.

결말 ‘나’는 올 가을에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농사일을 하러 간다.

절정2 장인과 싸우던 ‘나’는 예상과 다르게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을 보고 어리둥절해한다.

1 이 소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지 않고 ‘나’와 장인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을 결말 뒤에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와 장인의 활극을 강조하고 그 장면의 해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2 ‘나’가 일터로 나가지 않고 공식 위에 드러누워 배가 아프다고 한 것은 ‘나’가 게을러 그런 것이 아니라, 점순의 충동질에 ‘나’가 성례를 결정지으려고 거짓으로 아프다고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혼을 내 주려고 강하게 당겼다가도 장인의 눈물을 보고서는 겁을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모질지 못한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다.

③ 점순이 해 오는 나물은 공짜라서 많이 먹어도 괜찮지만 주식인 밥은 한 사람로 제한하는 것에서 장인의 인색함을 알 수 있다.

④ 장인은 ‘나’를 달래고 농사일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가을에 성례를 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장인의 교활함을 알 수 있다.

⑤ 점순은 ‘나’에게 성례를 재촉하라고 충동질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아버지가 위기에 닥치자 아버지 편을 든다. 이를 통해 점순의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3 [A]에서 ‘나’는 장인에게 바짓가랑이를 잡혀 장인의 호칭을 ‘장인님 → 빙장님 → 할아버지’라고 바꿔 부르며 다급해하고 있다. <보기>의 조조 역시 정욱에게 “위급하다, 위급하다. 날 살려라, 날 살려라.”라고 말하며 다급해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A]에서는 호칭의 변화만 나타날 뿐, 언어유희는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와 같이 목적어와 서술어를 뒤바꾸어 인물의 다급한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A]에는 첨예한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보기>에는 위급한 탈출 상황이 드러난다. 모두 갈등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는 서술 내용과 인물의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보기>는 인물의 말을 통해 상황을 그리고 있다.

⑤ [A]에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이 없고, <보기>는 과장된 표현 이라기보다는 희화화된 표현을 통해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알아두기 적벽가_작자 미상

- 해제: 이 글은 『삼국지연의』의 적벽 대전 이야기를 하층 군사들에 초점을 맞추어 해학적으로 재창조한 판소리 사설이다.
- 주제: 적벽 대전에서의 영웅들의 활약과 하층 군사들의 고충

내용 확인 문제 1 ○ 2 × 3 계월 4 구덕지

1 ⑤ 2 ④ 3 ①

가 남자가 될 수 없는 여자_장시광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홍계월전」에 대하여 분석하여 가치를 논한 비평문이다. 글쓴이는 「홍계월전」에는 무능한 남자에 대한 비판과 능력 있는 여자가 자아를 펼치는 못하는 시대적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스며들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홍계월전」의 한계와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나 홍계월전_작자 미상

해제 이 글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 영웅인 홍계월의 무용담을 그린 영웅 소설이다.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강했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인 계월이 전쟁에 나가 자신의 능력으로 큰 공을 세우고, 계월이 여성임이 밝혀졌음에도 천자에게 높은 벼슬을 받아 영웅적 행위를 수행하는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상이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계월은 비록 남장을 하였지만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남성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근대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복종하고 살았던 여성의 사회적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이 충실히 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 홍계월의 영웅적 행적과 활약,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 영웅 소설의 서사 구조를 보이며,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이 중심인물로 등장함.
- 남장 모티프를 통해 여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당시의 사회상을 드러냄.

전체 줄거리

발단 홍 시랑의 딸로 태어난 계월이 피란 중 부모와 헤어진다.

전개 계월은 여공의 도움으로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성장하여, 남장을 하고 급제를 한 뒤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부모와 만난다.

위기 계월의 남장 사실이 밝혀졌지만, 천자는 이를 용서하고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한다. 계월은 보국과 혼인한 후 갈등을 겪으며 규중에서 살아간다.

절정 오와 초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에 출정한 계월은 보국과 천자의 목숨을 구하고, 원수를 죽인다.

결말 국가의 위기를 구한 계월은 대장군의 작위를 받고, 보국은 승상이 되어 행복하게 산다.

수독 부분

1 [B]에서 화자인 계월은 천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은혜를 갚겠다고 하며 반란을 일으킨 오와 초로부터 사직을 보호하라는 천자의 명을 받들고 있을 뿐, 문제에 대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2 규중에서 세월을 보내던 계월이 천자 앞에 나가기 전에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은 것은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천자 앞에 나가기 전에 신하로서 격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①은 보국이 적병에 둘러싸여 위급해진 상황이므로 이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인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오답풀이 ② '사생결단(死生決斷)'은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이라는 뜻이다.

③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은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이다.

⑤ '파죽지세(破竹之勢)'는 '대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으로,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 말'이다.

내용 확인 문제 1 × 2 풀 3 발소리 4 ○

1 ③ 2 ③ 3 ②

반 통의 물_나희덕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발을 일구며 마주친 사물과 사람의 모습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발에 당근씨를 뿌릴 때, 김을 맬 때, 집 근처에서 텃밭을 일구시는 이웃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의 경험과 깨달음을 차례대로 제시하면서 인간의 기준에 따라 생명을 차별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공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발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특징

- 농사를 짓는 체험에서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음.
- 발을 일구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짧은 이야기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함.

한눈에 보기

글쓴이의 경험1	글쓴이의 경험2	글쓴이의 경험3
당근씨를 뿌린 후, 당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씨를 속아 줌.	잡초가 무성해진 밭에 가 김을 맬.	불편한 몸으로 채소들에게 물을 주는 할아버지를 봄.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깨달음.	선택보다는 공존의 질서가 필요함을 깨달음.	생명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깨달음.

→ 글쓴이가 일상의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삶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음.

1 ①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인 설의법을 사용하여 농사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은 남편과 함께 당근씨를 뿌리던 상황에서 글쓴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한 알은 ~ 위해’를 반복하여 자연을 대할 때에는 서로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풀’을 ‘원주민’으로 의인화하여 본래 땅의 주인인 풀들을 내쫓는 인간들의 행동 및 그런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는 ‘짙막한 이야기들’을 ‘영혼의 발소리’에 빗대어 농사를 지으며 깨달은 생명의 소중함과 그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2 이 글의 글쓴이는 김을 땀 때마다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3 이 글의 ‘반 통의 물’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텃밭의 생명들을 위해 나르는 것으로, 텃밭에서 자라나는 생명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보기>의 ‘산수유’는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위해 추운 겨울날 눈을 헤치고 따 온 것으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 오답풀이** ① ‘반 통의 물’과 ‘산수유’ 모두 도시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 ③ ‘산수유’는 대상(아픈 자식, 어린 시절의 화자)을 치유하는 소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 통의 물’은 대상(텃밭의 채소)에 손상을 입히는 소재가 아니라, 대상이 자라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재이다.
- ④ ‘산수유’는 화자의 어린 시절 경험(추운 겨울 몸이 아팠던 경험)과 관련된 소재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반 통의 물’이 미래의 소망과 관련된 소재인지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 ⑤ ‘산수유’는 어린 시절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그러나 ‘반 통의 물’은 할아버지께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는 소재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알아두기 성탄제_김종길

- 해제: 이 시는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색채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 내고 있는 작품이다.
- 주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수능 통통 04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149~151쪽

내용 확인 문제 1 ○ 2 × 3 지석 4 구두 상자

1 ⑤ 2 ④ 3 ④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_바바라 오코너 원작 / 김성호·신연식 각본

해제 이 글은 바바라 오코너의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의 대본으로 각색한 시나리오로, 어린아이의 성장담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현재형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진행되고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

주제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 특징**
- 주택 문제, 실업 문제,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동화적 기법으로 나타냄.
 -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아이와 어른이 모두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 냄.

전체 줄거리

발단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빠를 기다리며, 엄마와 동생 지석과 함께 승합차에서 사는 지소는 다음 달에 있을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하고 싶어 한다.

전개 오백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오해한 지소는 부잣집 개를 훔친 후 사례금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고급 레스토랑 주인인 노부인의 개 월리를 훔친다.

절정 지소는 월리가 노부인과 불화를 겪다가 가출한 아들이 죽으면서 남긴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우연히 아빠가 남긴 글을 발견한 지소는 엄마가 승합차에서 사는 것이 아빠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런 것임을 깨닫는다.

하강 지소는 자신이 아빠를 기다리는 것처럼 노부인도 월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월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

대단원 지소는 자신을 용서한 노부인에게 월리의 산책을 부탁받고, 엄마에게 생일 축하 도시락을 받는다.

1 S# 85에서 지소는 아빠가 집을 나가 승합차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정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정현과 갈등하게 된다. 하지만 S# 89에서 지소는 우연히 구두 상자 속 아빠의 글을 보게 되고, 아빠가 집을 나간 것이 정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정현과 화해하게 된다.

오답풀이 ① 지소와 정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아빠의 글로 S# 89에 제시되어 있다.

② S# 85에서 정현과 말다툼을 한 지소는 S# 86에서 대포가 있는 빈집으로 가 아빠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짓는다. 따라서 장면이 전환되며 아빠에 대한 지소의 의문이 풀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S# 86에서 등장한 대포는 지소에게 자식에 대한 아빠의 사랑을 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④ S# 86의 대포와의 대화나, S# 89의 아빠의 글이 궁극적으로는 지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는 실마리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소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대포는 지소가 ㉠의 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 보이는 풍경이 바다에서 자유롭게 사는 모켄족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며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대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3 ㉣는 차로 돌아온 지소와 지석이 정현이 보이지 않자 두리번 거리는 장면으로, 지소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고, 지석은 차 주변을 맴돌며 정현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보이도록 촬영하는 웨이스트 샷보다 인물과 그 주변까지 촬영하는 롱 샷이 ㉣에 더 적절한 촬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III 독서

내신 척척 01

조선의 얼, 광화문 ①

158~159쪽

1 ④ 2 ② 3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겠다.

조선의 얼, 광화문_문화재청 역음

해제 이 글은 광화문이 겪어 온 수난의 역사와 광화문을 지켜내고자 애썼던 여러 언론과 민족의 노력을 소개한 설명문이다. 광화문이 여러 역사적 수난을 거치면서도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조선 민족의 정신을 대표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을 상징해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광화문을 바로 세우는 일이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임을 강조하며 광화문의 숨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전하고 있다.

주제 광화문이 겪어 온 수난의 역사와 복원 과정

특징 • 소제목에 따라 광화문이 겪은 수난의 역사와 복원의 과정을 서술함.
• 신문 기사와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여 광화문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설명함.

한눈에 보기

광화문의 소개와 명칭의 유래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고, '오문'으로 불리다 1426년 세종 때 집현전 학사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 주자는 뜻으로 이름을 새로이 붙임.

광화문이 겪은 수난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새 청사를 경복궁 앞뜰에 짓는 과정에서 광화문의 자리를 옮김.

광화문의 복원

1995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면서 경복궁이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 광화문이 복원됨.

광화문을 지키기 위한 여러 언론의 노력과 여론 형성 과정

• 언론사에서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보도함으로써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일제가 광화문 철거 대신 자리 이동으로 결정을 변경함.
• 언론사에서 광화문 이전을 앞두고 고별사를 발표하며 일제 강점기 조선 민족의 울분과 한을 표현함.

- 1 '가운데-㉠'에 제시된 신문 기사에서 경복궁 내 전각을 경매하여 매각한 것은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제가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각을 매각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 『동아일보』의 폭로 이후에 『대한매일신보』도 광화문 보존 문제를 기사로 다루었다고 하고 있지만, 기사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운데-㉠'에서 1921년 5월에 『동아일보』가 광화문 사진을 싣고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하였다고 하고 있다. ③, ④ '가운데-㉠'에서 광화문 철거 소식이 돌아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도 더욱 거세졌다고 하고 있다.

⑤ '가운데-㉠'에서 거센 여론 때문인지 일제는 광화문 철거 계획을 접고, 대신 광화문의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 3 일제는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고,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앞뜰에 짓고, 광화문을 빼앗아 비틀어 남산을 향하게 하였다.

내신 척척 01

조선의 얼, 광화문 ②

160~161쪽

1 ③ 2 ③ 3 ② 4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이다.

- 1 '끝-㉠'에서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한 후, 찬성 쪽 주장에 따라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 글에서는 상반된 주장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붓으로써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에서는 대유법을 활용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대체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설의식의 기사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광화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당시 우리 민족의 분노와 울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다만 그를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라', '광화문,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역사를 이어 가리'와 같은 소제목을 통해 글에서 다룰 핵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 2 이 글로 보아 당시 광화문은 우리 민족의 얼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우리 민족들은 광화문이 열리는 것을 민족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 역사를 만들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3 ㉠은 일제 강점이라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여, 이러한 치욕스러운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나온 주장이다.
- 4 글쓴이는 광화문이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니라,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이며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로서 가치를 지닌 건물임을 말하고 있다.

내신 척척 02

시각 상과 촉각 상 ①

162~163쪽

1 ③ 2 ① 3 ③ 4 ③

시각 상과 촉각 상_이주현

해제 이 글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인 촉각 상과 시각 상을 설명하는 글이다. 먼저 초상화의 측면 상과 정면 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 벽화에 두 방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촉각 상과 시각 상의 특

정을 대조하며 미술의 보편적 기능을 제시하고, 미술의 개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주제 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특징 • 시각 상과 촉각 상을 대조하여 설명함.
• 다양한 그림을 예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함.

한눈에 보기

■ 촉각 상과 시각 상의 차이점

촉각 상	시각 상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

■ 글쓴이가 생각하는 미술의 의미

미술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임.
----	---

1 이 글은 동양과 서양의 초상화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초상화의 발달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처음-㉠’에서 사람의 측면 상이 많이 그려진 서양과 정면 상이 많이 그려진 동양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가운데-㉡’에서 말, 물고기, 도마뱀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면을 예로 들어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으로서의 면을 설명하고 있다.

④ ‘처음-㉠’에서 ‘프로필’, ‘프로필 초상화’의 개념을 풀이하여 밝히고 있다.

⑤ ‘가운데-㉡’에서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사람은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2 ‘가운데-㉡’에서 서양 사람들이 프로필을 많이 그렸다고 하고 있다. 프로필은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므로 서양에서는 주로 측면 상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3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는 것이 읽기 목적이므로, 필요한 정보가 제시된 부분을 찾아 자세히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읽기 방법이다.

4 읽는 중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며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③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므로, 읽는 중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내신 척척 02

시각 상과 촉각 상 2

164~165쪽

1 ⑤ 2 ④ 3 세계에 대한 앎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다.

1 ⑤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 정리하기는 읽은 후의 읽기 방법으로 볼 수 있다.

2 ㉠ 촉각 상의 사례로는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과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파라오나 귀족을 그린 그림을 들 수 있다. 고

대 이집트 벽화에서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은 시각 상의 사례에 해당한다.

3 ‘가운데-㉡’에서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앎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다.

내신 척척 03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166~167쪽

1 ③ 2 ③ 3 ⑤ 4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_고영삼

해제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논설문이다. 이 글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 자료를 통해 제시한 후, 스마트폰 중독이 왜 위험한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를 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그 해결 방안

특징 • 객관적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함.
•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함.

한눈에 보기

살의 문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해결 방안
•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각종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음. •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	•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음. •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함. •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추. •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함.
글쓴이의 당부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

1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의 긍정적 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글쓴이는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양면성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시기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새로운 이론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서론-㉠’에서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② ‘스마트폰의 두 얼굴’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스마트폰의 긍정적 기능과 부작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본론 1'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스마트폰의 중독 정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추세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서론-㉠'에서 대중 매체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스마트폰이 짧은 시간에 일상을 장악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 2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하고(ㄱ), 글쓴이의 의견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리며 읽어야 한다(ㄴ).
 3 '본론 1-㉠'에서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하고 있다.
 4 이 글 전체에서 관심의 대상은 청소년들이다. 그리고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본론 1'의 소제목인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이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내신 척척 03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2 168~169쪽

1 ② 2 ④ 3 ③ 4 세로토닌

- 1 이 글은 주장하는 글(논설문)로, 어떤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지만 글쓴이의 의견은 주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한 방안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유용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갖추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교육하고 스마트폰 중독 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보기>의 요건을 갖춘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다.
 3 ㉢과 ㉠은 ㉢의 사례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의 증상을 보인 사람에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인과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오답풀이** ① '본론 2-㉠'에서 두뇌의 '작업 기억'이 가득 차 버리면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이 떨어지는데 이 때문에 공부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② '본론 2-㉠'의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이라는 내용을 통해 금단 현상이 신경 정신과적 증상임을 알 수 있다.
 ④ '본론 2-㉠'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언급한 후, 가상 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원만한 대인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생활의 조건에 원만한 대인 관계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⑤ ㉢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례이므로 ㉠의 구체적 사례이며, ㉠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 4 '본론 2-㉠'에서는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 때문에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고 있다.

내신 척척 03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3 170~171쪽

1 ⑤ 2 ⑤ 3 ③ 4 요술 방망이

- 1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읽으면, 독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와 관련된 직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하여 모두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의 뒤에 이어진 "청소년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는 스마트폰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 해결 방안은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절한 해결 방안이다.
 ②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누구나 쉽게 찾아 해 볼 수 있도록 누리집 주소를 알려 주고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안이다.
 ③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용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해결 방안이다.
 ④ 혼자 있을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도 예의를 지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방안이므로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3 ㉠과 ㉢은 스마트폰에 대한 자료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 문제(㉠)나, 기업의 영업 이익 상승(㉢)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스마트폰 중독과 무관한 내용으로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부적절하다.
 4 이 글의 '요술 방망이'라는 표현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주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고, 인간관계도 나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다.

내신 척척 04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1 172~173쪽

1 ③ 2 ② 3 ② 4 ⑤

옷 한 벌로 세상 보기_이민정

- 해제** 이 글은 옷 한 벌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논설문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옷의 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옷 소비량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생각하는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의 필요성

특징 • 사회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명함.
• 일상 속의 현상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한눈에 보기

문제 상황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림.
원인	•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옷 가격 인하 •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인한 옷 생산 기간 단축

문제점	해결 방안
• 일부 의류 업체의 디자인 도용으로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됨. • 한 해에 생산되는 옷 중 4분의 3이 소각되거나 매립됨으로써 환경 오염이 발생함. •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착취됨.	• 옷을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함. • 옷을 만드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옷의 정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함.

1 이 글은 옷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설문이다. 그러나 여러 현상을 나열한 뒤 그로부터 공통된 원리를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본론 1-㉠'에서 A 기업과 B 기업이라는 가상의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 생산 단가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②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을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옷 가격 인하와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인한 생산 기간 단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미국에서 발간한 잡지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역시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⑤ '서론'의 '소비자가 이렇게 ~ 이유는 무엇일까?'를 통해 '본론'에서 다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서론-㉠'에서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이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린다고 한 것은 옷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행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입던 옷이 어느새 새로운 유행에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한 것이다.

3 이 글의 글쓴이는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옷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생산하는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유행을 따르기 위해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4 ㉠에서 글쓴이는 의류 업체와 소비자가 모두 좋아하는 현재의 옷 소비문화의 변화가 긍정적이지만 한 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현재의 상황 이면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룰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74~175쪽

내신 척척 04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2

1 ② 2 ③ 3 ④ 4 정당한 옷 소비를 통해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및 지구 환경까지 공생할 수 있는 옷 입기를 실천하자.

1 '본론 2-㉠'에서는 한 해에 생산된 의류의 4분의 3이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본론 2-㉡'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납품 기한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뺏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

오답풀이 ㉠. '본론 2-㉡'에서는 남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복제품을 만드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이 본 제품보다 더 잘 팔리는지는 이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 '본론 2-㉢'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제품을 만들어 많은 의류 업체가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의류 업체가 하청 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맺었는지는 이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2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옷의 제작 과정이 공정한지를 판단하여 정당한 비용을 주고 옷을 소비해야 함을 과도한 옷 소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행하는 최신의 옷을 사지 말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적은 없다.

3 의류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력을 쓸수록 옷의 원가도 많이 줄어든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많은 의류 업체가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우리나라가 아닌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④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내용은 이 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4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과도한 옷의 소비가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를 깨닫고 올바르게 옷 소비를 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까지도 공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176~177쪽

내신 척척 05

매체 읽기

1 ④ 2 ④ 3 ⑤

가 텔레비전 뉴스

주제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보령 머드 축제장' 방문 및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수출 협약 체결

특징 •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 등이 함께 사용됨.
•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를 직접 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

나 기사문

주제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보령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

특징 • '표제 - 부제 - 전문 - 본문'으로 구성됨.
•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

다 인쇄 광고

주제 '보령 머드 축제'의 날짜 및 장소 홍보

- 특징**
-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함.
 -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함.
 -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미지로 표현함.
 - 외국인이 즐겨워하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축제의 세계화 이미지를 부각함.

- 1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에 부합하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 2 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즐겨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활용하여 축제의 세계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사진을 통해서도 축제가 외화 벌이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 줌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가에서는 축제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시하여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나에서는 축제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지역 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⑤ 다에서는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읽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3 가, 나, 다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부분만 소개하고 있지만, <보기>는 '보령 머드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내신 척척 06

책 속에 길이 있다

178~179쪽

1 ⑤ 2 ⑤ 3 ①

책 속에 길이 있다 _이권우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특히 청소년기에 하는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일수록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독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한 간접 경험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독서가 시야를 크게 넓혀 줄 수 있으므로 어렵더라도 독서를 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고 있다.

주제 독서는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다.

- 특징**
-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생각을 풀어 나감.
 -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기

책 읽기의 가치

-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줌.
- 넘쳐 나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안목과 능력을 갖게 해 줌.
-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

글쓴이의 당부

책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길을 찾아 살기를 바람.

- 1 '가운데 - ㉠'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을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할 일은 드물 것 같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한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 습니다', '- 까요?', '- 지요' 등과 같은 경어체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친근감을 높이고 있다.
② '처음 - ㉡'에서 "그때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책 읽기로 위로를 받았던 긍정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③ '처음 - ㉠'에서 글쓴이는 '책' 하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는 말과 함께 춘천에 살 때 집 뒤 언덕에 올라 주변 풍경을 바라보던 기억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가운데 - ㉡'에서 글쓴이는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하며 정보 그 자체는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정보 혁명 이후에는 정보를 독점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다.
- 2 이 글의 글쓴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을 맹신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보가 범람하는 현대 시대에는 특정인이 정보를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 3 '가운데 - ㉠'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책을 읽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책 읽기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내신 척척 06

책 속에 길이 있다

180~181쪽

1 ⑤ 2 ⑤ 3 ② 4 가장 ~ 때문입니다

- 1 '가운데 - ㉡'에서 글쓴이는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결국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함이지요."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학 작품에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담겨 있어 독자를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가운데 - ㉡'에서 문학 작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③, ④ '가운데 - ㉡'에서 정보를 가치 있게 하려면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안목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2 글쓴이가 말하는 ‘책 속에 길’은 ‘진정한 학문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비유한 표현이다.
- 3 이 글의 글쓴이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진 후에 ‘가운데 - ㉡’에서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일지라도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 - ㉢’에서 글쓴이는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내면 우리 정신의 키는 훌쩍 자라난다고 하고 있고(㉣),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준다고 하고 있다(㉤).
- 4 ‘가운데 - ㉥’에서 글쓴이는 “가장 작고 낮은 단위의 정보에서 시작해,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을 다루는 것은 오직 책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책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수능 통통 01 예치와 법치

182~183쪽

내용 확인 문제 1 ○ 2 성악설 3 ×

1 ⑤ 2 ① 3 ④

예치와 법치

해제 이 글은 예치에 대한 공자와 순자의 주장과, 법치에 대한 한비자의 주장을 서술한 설명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자발적 양심에 의존한 예치를 강조한 공자의 사상, 사회 규범으로써의 예치를 강조한 순자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의 성악설에 영향을 받아 법적 제재를 통한 법치를 주장한 한비자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 공자와 순자가 주장한 예치와, 한비자가 주장한 법치

- 특징**
- 인물별로 예치와 법치에 대한 사상을 설명함.
 -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그 인물의 주장을 설명함.

한눈에 보기

예치	공자	• 법이라는 강제력이 아닌 예라는 자발적 양심에 의존한 통치를 주장함. • 법은 사후 조치이지만 예는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순자	•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고 봄. • 사회 규범으로써의 예를 통한 통치를 주장함.
법치	한비자	• 과거 주나라의 예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유가 사상을 비판함. • 도덕의 힘이 아닌 법적 제재를 통한 통치를 주장함.

- 1 2문단에서 “공자는 발생한 문제를 법으로 처리하면 사후 조치 밖에 되지 않지만, 예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근본적인 양심을 갖게 되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라고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한비자는 이러한 법을 행하는 수단으로 술(術)을 제시하였는데”라고 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순자는~인간의 행위 규범인 예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게 함으로써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공자는 통치자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본받아 교화된다고 하며”라고 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한비자는~주나라의 예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유가 사상을 비판하고”라고 하고 있다.

- 2 공자는 백성들을 예라는 자발적 양심에 의존하여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자발적 양심은 내면적 규범에 해당한다. 하지만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규범으로 예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외면적 규범에 해당한다. 3문단에서도 공자의 사상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한쪽은 내면적 규범을 중요시한 맹자의 덕치로 발전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외면적 규범을 중요시한 순자의 예치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공자는 자발적 양심에 의존한 예치, 순자는 사회적 규범으로써의 예치를 주장하였다.

③ 순자는 맹자와 달리 성악설을 주장했고, 한비자는 순자의 영향으로 인간을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로 여겼다.

④ 2문단에서 공자의 생각은 이상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제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한비자는 백성들을 도덕의 힘이 아닌 법적 제재로 다스리는 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 3 ㉠의 ‘내세우다’는 ‘주장이나 의견 따위를 내놓고 주장하거나 지지하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내세우다’는 ㉣이다.

오답풀이 ① ‘대표, 후보 따위의 역할을 하도록 나서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② ‘나와 서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③ ‘내놓고 자랑하거나 높이 평가하다.’라는 의미이다.

⑤ ‘어떤 일에 나서게 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수능 통통 02 초전도체

184~185쪽

내용 확인 문제 1 오너스 2 반자성 3 ○ 4 ○

1 ② 2 ③

해제 이 글은 초전도체의 성질과 그 응용 분야를 소개한 설명문이다. 이 글에서는 초전도체의 발견 과정을 통해 초전도체의 개념을 설명한 후 완전 도전성과 반자성이라는 초전도체의 성질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초전도체의 한계와 그 발전 계기를 설명한 후,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초전도체를 소개하고 있다.

주제 초전도체의 성질과 응용 분야

- 특징**
- 초전도체의 성질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함.
 - 초전도체의 응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한눈에 보기

초전도 현상의 개념	물질을 냉각할 때,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초전도체의 성질	① 완전 도전성: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열 손실 없이 전류를 공급할 수 있음. ② 반자성: 자기장을 만드는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그 자기장을 통과시키지 않고 외부로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뜰 수 있음.
초전도체의 응용 분야	자기 부상 열차, 자기 공명 영상 장치(MRI), 초전도 케이블, 핵융합 발전 등

1 이 글의 1문단에서는 초전도체 현상의 개념과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2문단에서는 초전도체의 완전 도전성, 3문단에서는 초전도체의 반자성, 4문단에서는 초전도체의 한계와 발전 계기, 5문단에서는 초전도체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2 1문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임계 온도, 임계 자기장, 임계 전류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임계 온도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림>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그림>은 오너스가 극저온인 절대 온도 4.2K에서 수은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즉,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 것을 나타낸 것이므로, 수은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임계 온도는 절대 온도 4.2K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오너스가 극저온에서 수은의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한 것과 <그림>의 가로·세로축을 고려할 때 곡선은 온도에 따른 수은의 저항 변화를 관찰하여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④ <그림>에서 물질의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낮을 때 저항이 0이므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베드노르츠와 뮐러가 발견한 초전도체는 오너스가 발견한 초전도체보다 임계 온도가 높으므로 <그림>의 곡선이 현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수능 통통 03 하수도와 하수 처리 방법

186~187쪽

내용 확인 문제 1 생물학적 2 혐기성 처리 3 ×

1 ③ 2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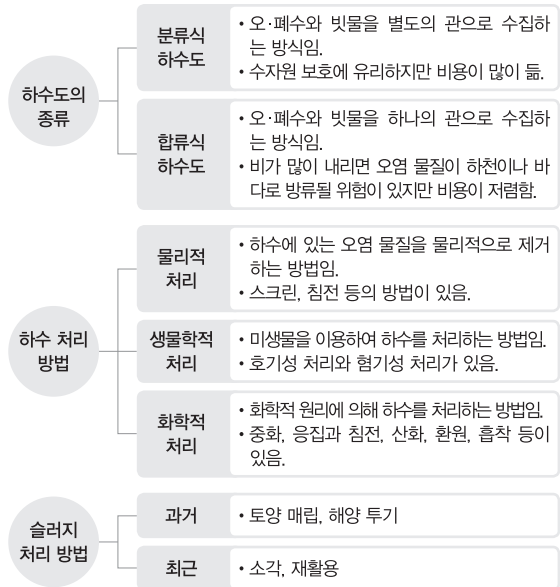
하수도와 하수 처리 방법

해제 이 글은 하수도의 종류, 하수와 슬러지의 처리 방법을 분류의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한 설명문이다. 이 글에서는 하수도를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 처리 방법을 물리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로 나누어 각각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고 있고,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과거와 현재의 처리 방법의 차이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하수도의 종류와, 하수 및 슬러지의 처리 방법

특징 • 하수도와 하수 처리 방법을 분류하여 각각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함.

한눈에 보기



1 [A]에서는 하수도를 하수의 수집 방법에 따라 분류식 하수도와 합류식 하수도로 나누고 각각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2 <보기>에서는 최종 침전지를 3시간 정도 물이 머물게 하면서 유기물 덩어리를 가라앉게 하는 곳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침전지에서는 침강하는 오염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물리적 처리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물리적 처리나 생물학적 처리를 보완하는 것은 화학적 처리이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는 오·폐수와 빗물을 별도의 관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분류식 하수도에 해당한다. 분류식 하수도는 두 계통의 관을 따로 매설해야 하므로 건설비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② 하수 중에 부유하거나 침강하는 오염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물리적 처리이다.

③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을 슬러지 또는 오니라고 한다.

④ <보기>에서는, 포기조에서 8시간 정도 하수에 공기를 공급하여 미생물을 증식시킨 다음 미생물들이 하수 속의 오염 물질을 분해하고, 유기물 덩어리를 만들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 산소가 있는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호기성 처리에 해당한다. 호기성 처리는 분해 속도가 빠르고 잔류물과 냄새가 적은 특징이 있다.

수능 통통 04 인상주의

188~189쪽

내용 확인 문제 1 × 2 ○ 3 물감 튜브 4 보색

1 ② 2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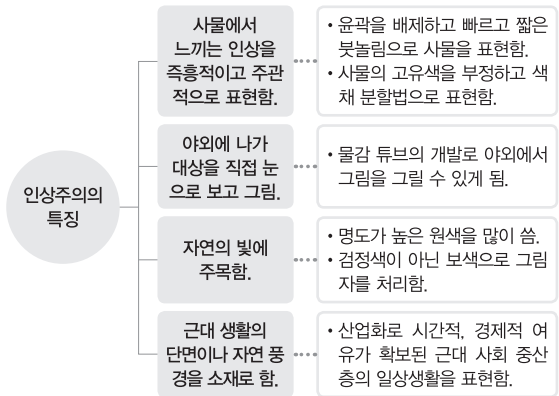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전통 회화와 대조하여 인상주의의 특징을 서술한 설명문이다. 이 글은 인상주의가 고착화된 전통 회화를 바꾸

기 위해 등장하였다고 하며, 전통 회화에서 탈피한 인상주의의 특징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상주의의 특징으로 사물의 인상을 즉흥적이고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 야외로 나가 대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연의 빛에 주목한 것, 그리고 근대 생활의 단면이나 자연 풍경 등을 주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주제 전통 회화와 다른 인상주의의 특징

특징 • 인상주의의 특징을 병렬적으로 제시함.
• 전통 회화와의 대조를 통해 인상주의의 특징을 설명함.

한눈에 보기



- 1 2문단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의 순도를 최대한 살려 생동감을 높여 주는 색채 분할법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색채 분할법은 두 원색을 섞지 않고 병치하는 것이므로 원색을 혼합하여 그림을 그렸다는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전통 회화는 명암의 강렬한 대비로 어두운 색이 밝은 색을 지배하였다는 것에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1문단에서 르로이가 생소하고 혁신적인 모네의 작품을 조롱한 것에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5문단에서 전통 회화 화가들이 성서와 신화 속 영웅 등의 이상적 모습을 주로 그렸으며, 이를 상상력에 의해 구체화했다는 것에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2문단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사물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인상을 즉흥적이고 주관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 4문단에서 빛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사물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 2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사실주의 화가들은 노동자나 농민 등 소외된 계층의 삶 속에서 작품의 주제를 찾아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5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인상주의 화가들은 산업화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 근대 사회의 풍속과 중산층의 일상생활 등을 표현하였으므로 사실주의 화가들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물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인상을 주관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②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모두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와 같은 이전의 전통 회화에 반하여 시작된 미술 사조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③ 이전의 표현 방법을 답습한 것은 사실주의의 한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④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모두 일상의 모습에서 작품의 주제를 찾았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IV 화법

196~198쪽

나신 척척 01

1 ⑤ 2 ③ 3 ④ 4 ④ 5 ④ 6 ⑤ 7 ⑤ 8 ③ 9 ④
10 ④ 11 ④ 12 ⑤ 13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상대방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말하고 있다.

- 1 <보기>에서 '나'는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으나 타정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나'가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일어난 갈등 상황이므로 ⑤와 같은 충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 2 <보기>에서 할아버지는 청소년 계층에서 주로 쓰는 줄임말을 인지하지 못하여 정훈의 발화 의도와 다른 의미로 '생파'를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세대 간의 언어 차이 때문이다.

- 3 일반적으로 표준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볼 때는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보기>의 밑줄 친 말은 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끼리 전문어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회 방언이 집단 구성원 간에 친밀감 및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보기>의 경우 친밀감을 형성하는 상황은 아니다.

② 지역 방언은 각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담고 있어, 문학 작품,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생동감이나 현장감과 같은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자주 쓰인다. 그러나 <보기>의 어휘는 전문어이다.

③ 해당 직업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문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⑤ 전문어의 사용은 완곡하게 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5 <보기>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휴가 때 바다 여행을 가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딸은 가족의 대화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음악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협력의 원리 중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질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②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순서 교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③ 협력의 원리 중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⑤ 협력의 원리 중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 6 [B]는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건의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여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B]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7 지호는 같이 저녁을 먹자는 찬우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음료를 마시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은 최대화하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이라고 한다.

오답풀이 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은 '찬동의 격률'이다.

②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은 '요령의 격률'이다.

③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은 '겸양의 격률'이다.

④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은 '관용의 격률'이다.

- 8 가치 문제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와 같은 가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정책 문제는 사실과 가치 판단에 기초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자신의 주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① 무엇이 좋은지 나쁘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와 같은 가치 판단이 필요한 가치 문제에 해당한다.

②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논리적 사실 입증이 필요한 사실 문제에 해당한다.

④, 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 9 ㉔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㉔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국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와 같은 쟁점의 찬성 측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10 사회자는 ㉠에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고(㉠), ㉡에서는 "찬성 측 제1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에서는 발언 순서를 지키지 않은 '반대 1'을 제지하며 문제를 중재하고 있다(㉢).

- 11 ㉡에서 반대 1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높고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청소년의 절제력이 낮으며,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휴대 전화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찬성 1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 제한으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기는 어렵다는 반박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서는 ④를 쟁점으로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에서 반대 1은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를 통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높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13 ㉢에서 반대 1은 찬성 2의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

199~201쪽

내신 척척 02

1 ⑤ 2 ② 3 ㉠: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 / ㉔, ㉕, ㉖ 4 ⑤ 5 ③ 6 ⑤ 7 ③ 8 ① 9 ⑤ 10 ①

- 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존재하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따라서 협상을 할 때에는 상호 존중과 양보의 태도로 임하되,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닌, 협상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타협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 2 <보기>에서 손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진기의 가격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점원과 사진기 가격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

- 3 ㉠은 시작 단계로, 정연과 재민은 각자가 속한 동아리 단체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는 조정 단계로, 정연과 재민은 음악실 사용 시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상호 검토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 ㉢는 해결 단계로, 정연과 재민은 음악실 사용 시간 및 방법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⑥ 일반적으로 조정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하여 상대의 처지나 관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㉔ 협상의 결과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을 뿐, 협상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 4 이 협상으로 정연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재민의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게 해 주었지만 대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음악실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중에 연습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재민의 반 학생들이 음악실 청소를 맡아서 하게 하여 음악실 청소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 5 정연은 재민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동작을 하자, 이러한 재민의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의 의도와 핵심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6 ㉠은 재민이 밴드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정연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7 ㉢에는 남의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한다는 경청의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속담들에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필

요한 말만 조심히 하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말이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데 따라서 아주 다르게 들린다.’는 말이다.

④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이다.

⑤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이다.

- 8 <보기>에서 이봉정은 광해군이 나랏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음을 돌려 말하여 광해군을 일깨우고 있다. ①의 딸 역시 용돈이 부족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어머니에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④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예에 해당한다.

③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표현하는 겸손하게 말하기의 예에 해당한다.

⑤ 조심스러운 사안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꼭 필요한 말만 조심히 하는 신중하게 말하기의 예에 해당한다.

- 9 <보기 2>의 출연자는 음악 잡지에서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데도 과찬을 해 주었다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

- 10 남학생은 여학생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여학생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자신의 말만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수능 통통 01

202~203쪽

1 ⑤ 2 ①

- 1 반대 신문에서 찬성 2는 실력 있는 가수들이 입는 피해와 음악 산업 발전의 저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찬성 1은 팝 가수가 해외 공연에서 립싱크를 했다가 관객들이 환부를 요구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가수의 본분은 노래를 부르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가수는 무대에서 립싱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② 반대 2는 예전에는 가수의 가창력이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의 감동을 이끌어 낸다고 말하며 가수의 본분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는 찬성 측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③ 찬성 1은 대중음악 평론가의 말을 인용하여 가수는 가창력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고 반대 2의 반대 신문을 반론하였다.

④ 반대 1은 먼저 한류 열풍과 한류의 주역이 아이돌 그룹임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격렬한 댄스와 더불어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 그룹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립싱크를 금지하면, 한류 열풍의 확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 2 찬성 2는 실력 없는 가수들이 무대를 차지하면 실력 있는 가수들이 무대에 설 수 없고 나아가 음악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반대 1은 자신이 앞에서 언급한 아이돌 그룹 가수들이 실력이 없는 가수가 아니라는 반박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④ 아이돌 그룹 가수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나 립싱크 금지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내용은 찬성 2가 말한 반대 신문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⑤ 중국의 립싱크 금지 사례, 가요 프로그램의 아이돌 그룹 출연 편중은 가수들이 립싱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립싱크 금지에 반대하는 반대 측 주장에 맞지 않는다.

수능 통통 02

204~205쪽

1 ⑤ 2 ⑤

- 1 나눔군 관계자는 ㉠에서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타협안을 환경 단체 관계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눔군 관계자는 ○○군의 사례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②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③ 증가한 관광객의 수와 연간 경제 효과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군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라는 말로 상대방 발언을 반복하여 제대로 알아들었음을 나타냈다.

- 2 [C]에서는 나눔군 관계자가 환경 단체 관계자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두 참여자가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단체 관계자가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V 작문

내신 척척 01

212~214쪽

1 ④ 2 ⑤ 3 ③ 4 ⑤ 5 ② 6 ④ 7 ⑤ 8 ⑤ 9 ⑤

- 1 글은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히고 수용된다. 따라서 독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글을 읽고 수용한다는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 이 글에서 글쓴이가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글쓴이의 개인적 고민을 제시하기보다는 객관적·사실적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이자, 글쓴이의 꿈이기도 한 로봇 공학자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② 이 글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2문단과 3문단에서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이 글의 '끝'에 해당하는 4문단에서 미래 사회에서 로봇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유망 직종인 로봇 공학자로 성장해 나갈 자신의 미래를 응원해 달라고 덧붙이고 있다.
④ 이 글은 예상 독자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이므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개괄적인 정보를 다루어 로봇 공학자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 3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려 독자와 소통할 경우에는 글 이외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관련된 누리집 주소를 소개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글은 로봇 공학자라는 직업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므로,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전문 지식들을 보충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글쓴이는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글을 쓰고, 독자는 글쓴이가 쓴 글을 자기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으며 수용한다. 제시된 댓글에서 독자의 반응이 각각 다른 것은 로봇 공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로봇 연구를 바라보는 가치관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5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한 후, 자료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글의 목적에 따라 자료의 내용을 과장·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6 개요 작성은 준비된 글감들을 주제와 목적에 맞게 배열하여 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서술하기 위한 과정이다. 글을 쓸 때에는 가능한 개요에 따라 내용을 서술해야 하지만, 글의 주제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요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 또한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가 글의 주제이므로 심폐 소생술 교육의 효과 및 방법은 본문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㉔은 청소년 비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터뷰한 자료이므로 '결론'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 ㉔은 ㉔과 함께 '본론 1'의 청소년 비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8 글의 개요와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것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상 독자인 청소년들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이 모 군의 사례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글 전개 방향을 소개한 ⑤가 <보기>의 조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③ 예상 독자의 생활과 밀접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글에서 다루게 될 문제 상황과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서술이다. 선생님의 조언에서 제시한 예상 독자의 생활과 밀접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문에서 다룬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예상 독자의 생활과 밀접한 사례만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서 다룬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이 공익 광고는 순간의 방심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을 뿐, 개인의 안전 불감증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215~217쪽

내신 척척 02

1 ⑤ 2 ② 3 ⑤ 4 ④ 5 ③ 6 ② 7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8 ⑤ 9 ⑤ 10 ② 11 ③

- 1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을 쓸 때에는 내용을 극적으로 꾸며 낼 수 있는 표현보다는 개성적이면서도 진솔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오답풀이 ①, ② 글쓰기의 목적에 맞는 글감을 떠올리며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③ 글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④ 글의 목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구성 방식을 선택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 2 글쓴이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건축물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물건을 파는 어린아이들을 보았던 경험을 계기로, 낭비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3 경험과 성찰을 담아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는 일상 속 경험을 되새겨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글쓴이는 가치 있는 경험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남길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오답풀이 ①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는 일상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선택하여 글을 쓰는 것이므로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은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②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글쓰이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글쓰기 활동의 일반적인 장점에 해당하며,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의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④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글을 쓸 때에는 타인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 관계를 다지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③, ④는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4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때에는 글을 쓰는 사람의 배경지식 이 아니라 글을 읽을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동차 매연 줄이기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도 가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보호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글로 볼 수 있다.

6 ㉠이 있는 문장이 ‘-니까?’의 종결 어미를 사용한 ‘않을까?’로 끝맺고 있음을 고려하면, ‘버리더라도’는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버린다면’ 정도로 수정해야 문장 호응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7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의 쓰기 맥락은 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글의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한 분량과 상관없이 모든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9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풍경 사진을 가져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

10 글의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글에 제시하는 정보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 왜곡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11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수능 통통 01

218~219쪽

1 ㉠ 2 ㉡

1 가의 그래프는 전체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가의 그래프는 ‘I. 서론’에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실태를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의 “우리 동네, 우리나라, 우리 지구”에서는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여 마침내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점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문 형식으로 독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동참을 완곡하게 권유하고 있다.

수능 통통 02

220~221쪽

1 ㉠ 2 ㉡

1 이 글은 ‘나’가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를 뚫은 모습을 보고 깨달은 점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 순서를 바꾸어 사건들을 구성했다는 ㉡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제재로 삼아,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②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을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을 ‘의태어’라고 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 ‘쿵쿵’, ‘줄줄’과 같은 의태어, ‘사각사각’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문장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③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 글쓴이가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이 나타나 있다.

④ 산에 오르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 ‘나’가 연기 학원에 다닌 것은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또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가 아니라,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래서’로 바꾸어야 한다.

VI 문법

1 국어의 변화

내신 척척 01

226~227쪽

1 ㉓ 2 ㉓ 3 노·미 4 ㉓

- ㉓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생활의 차이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자주정신이 드러나고, ㉓에서는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겼다는 점에서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그리고 ㉓에서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를 창제했다는 점에서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 '쁘·름·라'는 '쁘·름+이니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을 뒷말의 초성으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를 사용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쁘·름'에서 '쁘'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온 경우로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② '스·뒸·디'에서 '뒸'는 원래 받침이 'ㅌ'이지만 8중성법에 따라 'ㅌ'으로 표기되었다.
④ '쁘·름'에서 '쁘'는 '쁘'의 'ㅡ'가 음성 모음이므로 명사형 어미 '-음'과 결합한 것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글자이다.
⑤ 동국정운식 표기는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적는 것을 말한다. 'ㅅ·생', '御·영', '製·정'은 종성에 음가가 없지만 'ㅇ' 받침을 사용하여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였다.
- '놈'은 '보통 사람'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단어이다.
- 중세 국어에서 '에'는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㉓의 차이점은 적절하지 않다.

내신 척척 02

228쪽

1 ㉓ 2 ㉓ 3 ㉓ 4 내·히

- 이 글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담고 있는 약장이다. 그러나 후렴구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8중성법은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꽃'에는 이 여덟 자에 해당되지 않는 'ㅈ'이 사용되었으므로 8중성법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식·미'는 명사 '침'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것으로 모음 조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남·근'은 '남+근'을 통해 만들어진 말로 양성 모음끼리 조화를 이룬 말이다.

- '쁘·름·매'는 '쁘·름+애'를 통해 만들어진 말로 양성 모음끼리 조화를 이룬 말이다.
- 'ㄱ·름·래'는 'ㄱ·름+애'를 통해 만들어진 말로 양성 모음끼리 조화를 이룬 말이다.
- '바·름·래'는 '바·름+애'를 통해 만들어진 말로 양성 모음끼리 조화를 이룬 말이다.

- <보기>는 'ㅎ' 곡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내·히'는 '내·ㅎ+이(주격 조사)'로 '내·ㅎ'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ㅎ' 음을 끝소리로 가진 특수한 체언에 해당한다.

수능 통통

229쪽

1 ㉓ 2 ㉓

- ㉓의 '거·시·라'는 '것+이·라'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 아니라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는 이어 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孔·공·지'는 'ㅇ'로 끝나므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오는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③ '아니·하·다'의 어간 '아니·하'가 'ㅇ'로 끝나므로 명사형 어미도 양성 모음을 가진 '-음'이 온 것이다.
④ '빠'의 'ㅃ'은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다.
⑤ '현·더·케'는 차츰 변화가 일어나서 '현·더>현·저>현·저'로 바뀌는데, ㉓은 아직 구개음화(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ㅌ', 'ㅌ'이 되는 현상)가 일어나지 않은 글자이다.
- <보기 1>의 내용으로 볼 때, ㉓의 뒤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고'가 이어지기 때문에 ㉓에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㉓의 앞 글자 '듣'은 끝 음운이 'ㄷ'이기 때문에 ㉓에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줍'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2 음운의 변동

234~236쪽

내신 척척

1 ㉓ 2 ㉓ 3 ㉓ 4 ㉓: ㉓, ㉓: ㉓ 5 ㉓ 6 ㉓ 7 ㉓
8 ㉓ 9 ㉓ 10 ㉓ 11 ㉓ 12 ㉓ 13 ㉓ 14 ㉓: 기어,
㉓: 되어/되여, ㉓: 학교에 15 ㉓ 16 ㉓ 17 ㉓

- <보기>의 단어들은 겹옷[거둔], 바깥[바깥], 동녘[동녘], 풀쭉[풀쭉]과 같이 받음된다. 이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의 자음만이 음절의 끝에서 받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반영된 것이다.

2 ㉞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설명에, ㉟은 비음화의 설명에 해당한다. ③ ‘백로’의 경우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을 [ㄴ]으로 발음하여 [백노]가 되고, 이후 ㉟가 적용되어 [뱅노]로 발음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후에 비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3 받침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 한다. ①은 [밤물], ②는 [장넌], ③은 [궁내], ④는 [건는다]로 각각 발음되며, 이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⑤는 [할:라산]으로 발음되며 이는 유음화에 해당한다.

4 ‘물난리’에서 ‘난’의 초성 ‘ㄴ’은 ‘물’의 종성인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므로 ㉟에 해당한다(㉟). 또한 ‘난’의 종성 ‘ㄴ’은 뒤에 이어지는 ‘리’의 초성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므로 ㉟에 해당한다(㉟).

5 ‘염려’는 ‘려’의 초성 ‘ㄹ’이 받침 ‘ㄹ’과 만나면서 ‘ㄹ’과 조음 방법이 동일한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 [염:녀]로 발음된다.

6 ① ‘말이[마지]’, ② ‘굳이[구지]’, ④ ‘해돋이[해도지]’, ⑤ ‘미단이[미:다지]’는 모두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꽃이[꼬치]’는 받침 ‘ㅈ’이 그대로 연음되는 것일 뿐,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 말이 아니다.

7 ‘밭이랑’과 ‘끝인사’는 ‘ㄷ, 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들이다. 따라서 받침 ‘ㄷ, ㅌ’과 형식 형태소 ‘ㅣ’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개음화 현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지 않는다.

8 ‘닭장’은 [닥장] → [닥짱]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9 ‘할 수는[할쑤는]’, ‘갈 곳[갈꼐]’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ㅅ’과 ‘ㄱ’이 연결되는 것으로 모두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가는 사람[가는 사:람]’과 ‘입는지[입는지]’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쓰인 말이 아니므로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웃고름[웃꼬름]’, ‘낫설대[낫셀대]’, ‘값지대[갑찌대]’, ‘넙죽하다[넙쭈까다]’와 같이 발음된다.
② ‘신고[신꼬]’, ‘앉고[안꼬]’, ‘더듬지[더듬찌]’, ‘절지[절찌]’와 같이 발음된다.
③ ‘넙게[넙께]’, ‘할대[할때]’, ‘홀쏘[홀쏘]’, ‘떨지[떨찌]’와 같이 발음된다.
④ ‘발똥[발똥]’, ‘절똥[절똥]’, ‘말쌈[말쌈]’, ‘물상식[물상식]’과 같이 발음된다.

10 ㉟ ‘고파서’는 ‘고프-+-아서 → 고파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고, ㉟ ‘켜’는 ‘크-+-어 → 커’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㉟ ‘갸다’는 ‘가-+-았-+-다 → 갸다’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음 ‘ㅏ’가 탈락하였고, ㉟ ‘쌌다’는 ‘사-+-았-+-다 → 쌌다’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11 한자어의 의존 명사 가운데 ‘년(年)’은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12 ‘꺼안다[꺼안따]’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에 해당한다.

13 ‘담갔다’는 동사 ‘담그다’의 어간 ‘담그-’에 어미 ‘-았-’과 ‘-다’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ㄱ’과 ‘ㅏ’가 만나 ‘ㄱ’로 줄어든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② ‘ㄱ’과 ‘ㅣ’가 만나 ‘ㄱ’로 줄어든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③ ‘ㅣ’와 ‘ㅣ’가 만나 ‘ㅣ’로 줄어든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⑤ ‘ㅡ’와 ‘ㅣ’가 만나 ‘ㅣ’로 줄어든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14 ㉟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 반모음 첨가 현상이므로, 표준 발음은 [기어]이다. ㉟은 ㉟과 같은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되어]가 원칙이지만, 반모음이 첨가된 [되어]도 허용한다. ㉟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한 반모음 첨가 현상이므로, 표준 발음은 [학교에]이다.

15 ‘잡히다[자피다]’는 자음 축약이 나타나는 단어이므로 ㉟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난로[날로]’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이다. 따라서 음운의 교체 예에 해당한다.
② ‘술한’은 [술한] → [수탄]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자음 축약)가 나타나는 단어이다. 따라서 음운의 교체와 축약이 모두 일어난 단어이다.
③ ‘종고[조꼬]’는 거센소리되기(자음 축약)가 나타나는 단어이고, ‘꺼서(끄-+-아서)’는 모음 탈락이 나타나는 단어이다. 따라서 각각 음운 축약과 음운 탈락의 예에 해당한다.
⑤ ‘서울역’은 [서울녁] → [서울력]으로, ‘ㄴ’ 첨가 현상과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이다. 따라서 음운의 첨가와 교체의 예에 해당한다.

16 백합[배갑]은 ‘ㄱ’이 ‘ㅎ’과 만나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이며, 된소리되거나 두음 법칙은 나타나지 않는다.

17 ‘할 것입니다’는 [할꺼십니다] → [할껴십니다]로 된소리되기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껴네’는 [껴네] → [껴네]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수능 동통

237쪽

1 ㉟ 2 ㉟

1 ‘굳이든다[고지들따]’에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구개음화(㉟)와,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 ‘ㅌ’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㉟)가 일어난다.

2 ㉟에 있는 겹받침 ‘ㅃ’은 첫째 자음인 ‘ㄹ’만 발음된다. 하지만 ㉟에 있는 겹받침 ‘ㅃ’은 첫째 자음인 ‘ㅂ’뿐 아니라 둘째 자음인 ‘ㅅ’도 형식 형태소 ‘이’의 초성이 되어 발음되므로 ㉟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문법 요소

242~244쪽

내신 척척

1 ④ 2 ① 3 ② 4 ⑤ 5 ④ 6 상품이십니다 → 상품입니다, 가격께서는 → 가격은, 삼만 원 되시겠습니까 → 삼만 원 되겠습니까 / 삼만 원입니다 7 ① 8 ⑤ 9 장차, 만날 것(-ㄹ 것), 이루어라(-리-) 10 ③ 11 ① 12 ③ 13 ④ 14 ① 15 ①: 세상이 눈으로 덮였다., ②: 줄이 철수에 의해 끊겼다. 16 ③ 17 ④

1 주체 높임법은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실현된다.

2 ①은 종결 어미 '-어'가 쓰인 '해체'로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격식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종결 어미 '-(으)십시오'가 쓰인 '하십시오체'이다.

③ 종결 어미 '-ㄴ가'가 쓰인 '하계체'이다.

④ 종결 어미 '-럼'이 쓰인 '해라체'이다.

⑤ 종결 어미 '-소'가 쓰인 '하오체'이다.

3 '모시고'는 동작이 미치는 대상 즉 문장의 목적어인 할머니(객체)를 높이는 어휘이므로, ②는 객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③ 서술어에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④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⑤ '자다'의 높임말인 '주무시다'를 통해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4 ⑤의 '연세'는 명사 '나이'의 높임말로, ㉠에 해당하는 예이고, '드리다'는 동사 '주다'의 높임말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오답풀이 ㉠에는 ㉠만, ㉡와 ㉢에는 주체를 높이는 용언만, ㉣은 ㉠만 쓰였다.

5 선생님께 가야 할 사람인 용준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므로 용준을 높여 '오시라고'로 표현하는 것은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여 '오라고 하셔'로 바꾸어야 하며, 이는 '오라셔'로 줄여 쓸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십니다'가 아니라 '상품입니다', '가격께서는'이 아니라 '가격은', '삼만 원 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삼만 원 되겠습니까' 내지는 '삼만 원입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7 ㄹ에 제시된 '나는 영화를 보았다.'에서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제이므로 ㄹ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ㄹ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8 ㉠은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 ㉡은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은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9 <보기>에서는 '앞으로의 뜻으로, 미래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말'인 부사어 '장차', 관형사형 어미 '-ㄹ'에 의존 명사 '것'을 결합한 '-ㄹ 것', 그리고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0 동작상 중 진행상을 표현할 때에는 주로 보조 용언 '-고 있다' 또는 '-아 가다/-어 가다'를 사용하거나 연결 어미 '-(으)면서'를 쓰는데, ㉣의 '마르고 있다'는 '-고 있다'가 쓰인 표현이므로 ㉠에서 설명한 진행상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은 '-어 버리다', ㉡는 '-아 있다', ㉣는 '-어 있다'와 같은 보조 용언을 통해, ㉤는 '-고서'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

11 '결리다'는 '숨을 크게 쉬거나 몸을 움직일 때에, 몸의 어떤 부분이 뜨끔뜨끔 아프거나 빠근한 느낌이 들다.'라는 뜻의 동사로, 피동 접미사가 결합되지 않았다.

12 '오늘은 글씨가 잘 써진다.'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오늘은 글씨를 잘 쓴다.'가 된다. 따라서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목적어는 '글씨를'이 된다.

13 ㉠에는 능동 표현, ㉡에는 피동 표현이 사용된 신문 기사의 제목이 나타나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 ㉠과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실제 행위를 하는 주체는 드러나지 않고, 행위의 결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의 독자는 이런 표현 의도에 따라 '물이 낭비되는'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14 '닭이지'는 '닭-'에 '-어지다'를 붙여 만든 올바른 피동 표현이다. 하지만 '닭이지'를 '닭여지'로 바꾸면 피동 접미사 '-이-'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또 붙여 쓴 이중 피동 표현이 된다.

15 능동문의 주어,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각각 부사어, 주어로 바뀐다. 또한 능동문의 서술어는 능동사인데, 피동문에서는 피동사로 바뀌며, 피동 접미사를 사용할 경우 ㉠의 '덮었다'에는 '-이-', ㉡의 '끓었다'에는 '-기-'를 붙이면 된다.

16 ㉢의 철수가 어제 말한 '내일은'은 '오늘'에 해당하므로 ㉢의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철수는 어제 자기는 오늘 못 간다고 말했다.'가 된다.

17 ㉠과 같은 직접 인용 표현은 경비원과 아버지의 대화를 직접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준다. 이를 ㉡과 같은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생생한 느낌은 덜하지만, 직접 인용 표현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오답풀이 ㉠은 직접 인용문, ㉡은 간접 인용문이다.

㉢ ㉠과 ㉡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은 아버지의 말을 원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글 속에 넣어서 쓴 것이다.
 ⑤ ㉡은 ㉠에 비해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수능 통통

245쪽

1 ㉡ 2 ㉡

- 1 ㉠에서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가 아닌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의 ‘오늘’은 시간 부사어가 아닌 명사에 해당한다.
 2 ㉡의 ‘태우다’는 ‘불씨나 높은 열로 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나다.’의 의미를 지닌 ‘타다’의 사동사이다. ‘태우다’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타-+-이-+-우-+-다’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와 ‘-우-’의 사동 접미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태우다’는 이중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4 한글 맞춤법과 국어 사랑

250~252쪽

내신 척척

1 ㉢ 2 ㉡ 3 ㉢ 4 ㉣ 5 ㉠ 법석, ㉡ 연도, ㉢ 반드시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 ‘낫잠’을 ㉠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면 ‘낫잠’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낫잠’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이다.
오답풀이 ① ‘꽃이, 꽃만, 꽃도’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의 [꼬치], [꼰만], [꼰또]이다.
 ② ㉡은 ‘꽃’이라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원형을 밝혀 언제나 동일하게 적는다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④ ‘어름’, ‘올쏘매’로 표기하지 않고 ‘얼음’, ‘올소매’로 표기한 것을 통해 두 단어 모두 ㉡과 같이 본래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꼰만], [꼰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花]’을 ‘꼬’, ‘꼰’, ‘꼰’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2 <보기>를 ‘오늘 밤나무 사 온다’, ‘오늘 밤 나무 사 온다’, ‘오늘 밤 나무 사 온다’로 띄어 쓰면 오늘 사 오는 것이 세 가지임을 알 수 있다.
 3 ‘접시는’ ‘깍두기’와 마찬가지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기 때문에, ‘접씨’로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에 해당하는 예이다.
 ②, ⑤ 된소리가 나는 원인을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ㄴ, ㄹ, ㄹ, ㅁ, ㅁ’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에 해당하는 예이다.

- 4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ㄹ’만 ‘울’로 적으므로, ‘시청 울’이 아니라 ‘시청ㄹ’로 표기해야 한다.
 5 ㉠의 ‘법석’은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석’으로 적는다. ㉠의 ‘년도’는 자음 ‘년(年)’이 단어의 첫머리에 온 경우이므로 두음 법칙에 따라 ‘연도(年度)’로 적는다. ㉡의 ‘반듯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이 아니므로 소리대로 ‘반드시’로 적는다.
 6 ‘먹으니까’는 용언의 어간 ‘먹-’과 어미 ‘-으니까’를 구별하여 적은 것이다(㉠). ‘늘어지다’는 ‘늘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 어간 ‘늘-’을 밝혀 적은 것이고(㉡), ‘쓰러지다’는 ‘쓸다’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므로 ‘쓸-’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7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된 말로 제20항이 명사 뒤에 붙는 말에 대한 규정임을 고려하면 <보기>와 관련된 예가 아님을 알 수 있다.
 8 ‘콧날’은 ‘코’와 ‘날’이라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콘날]로 발음된다. 하지만 ‘뒷일’이나 ‘깻잎’처럼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이라는 환경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예가 아니라, 1-(2)에 따라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예이다.
오답풀이 ① ‘뱃길’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배길/뱃길]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② ‘뱃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빈물]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④ ‘꼭짓점’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꼭짜점/꼭짚점]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⑤ ‘제삿날’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제-산날]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9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을 이르는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이다. 이 단어는 한자어와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나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인사말’로 표기해야 한다.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말로 ‘머리말, 꼬리말’ 등이 있다.
 10 설거지는 본래 ‘설꺠다’에서 온 말이나, 이 단어가 소멸되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때문에 ‘설거지’로 표기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의 규정과도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갈게’는 ㉠의 규정에 따라 된소리가 아닌 예사소리로 적는다.
 ② ‘가든 말든’은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던’이 아니라,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인 ‘-든’으로 적는다.

- ③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므로, '잘생겼더라'는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인 '-더라'로 적어야 한다.
 ⑤ '봤다'는 모음 '고'로 끝난 어간에 '-았-'이 어울려 '봤-'으로 된 것이므로 준 대로 적는다.

11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이나 의존 명사는 명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가 형식적 이어서 다른 말 아래 기대어 쓰이는 명사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조사와 의존 명사는 문장에서 쓰임이 같다고 볼 수 없다.

12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에 따라 '김군'은 '김 군'으로, '김영석박사'는 '김영석 박사'로 띄어 써야 한다.

13 ⑤의 '안 되기를'은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안되기를'로 붙여 써야 한다.

- 오답풀이** ① '안돼서'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줄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② '안 된다'는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안'이 쓰인 것이다.
 ③ '안됐군'은 '섭섭하거나 기없어 마음이 언짢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④ '안돼'는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14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표음 문자이므로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기기에 적합하게 쓰일 수 있다.

알아두기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 해제: 이 글은 한국어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바른 언어생활을 하여 우리말과 글을 소중하게 가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제: 한국어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 우리의 말과 글을 소중히 가꾸어야 함.

15 '다운로드'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순화어는 '저장하기'가 아니라 '내려받기'이다.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만난 지'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아는 대로'의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법대로'의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③ '세 판'의 '판'은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인 의존 명사이고, '명함판'의 '-판'은 '책이나 상품에 쓰이는 종이의 일정한 길이와 규격'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④ '있을 뿐'의 '뿐'은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가족들에게뿐'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들'의 '들'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사건들'의 '-들'은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수능 통통

253쪽

1 ④ 2 ②

1 ④ '어질어'의 기본형은 '어질다'로, 기본형에서부터 어간의 끝에 'ㄹ'이 있기 때문에 어미가 바뀔 때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질다'는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와 같이 용언의 어미가 바뀔 때,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든 경우에 해당한다.

2 ② '만난지'의 '지'는 어미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